순천만 국가정원

스토리북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인사말

순천만국가정원 스토리북 발간을 축하합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고 4년이 흐른 지금, 순천만국가정원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한 쉼터가 되었고 연간 500만명이 넘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원'하면 '순천'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지역 브랜드지수를 높이는 근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순천은 명실상부한 '정원의 도시'로 그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정원산업디자인전과 한평정원 페스티벌,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축제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을 둘러보아도 채 보지 못한 곳이 있을 만큼 드넓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수많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순천만국가정원 스토리북 제작을 통해 그 아쉬움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순천만국가정원으로 관람객을 실어 나르는 한 택시기사님은 "국가정원을 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국가정원 곳곳을 둘러보고 더 잘 알기위해 최소한 세 번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해설사 스토리북이 정원을 더 깊이,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정원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주는 샘물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스토리북"이 앞으로 정원 해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발간에 도움을 주신 국가정원해설사님들, 감수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정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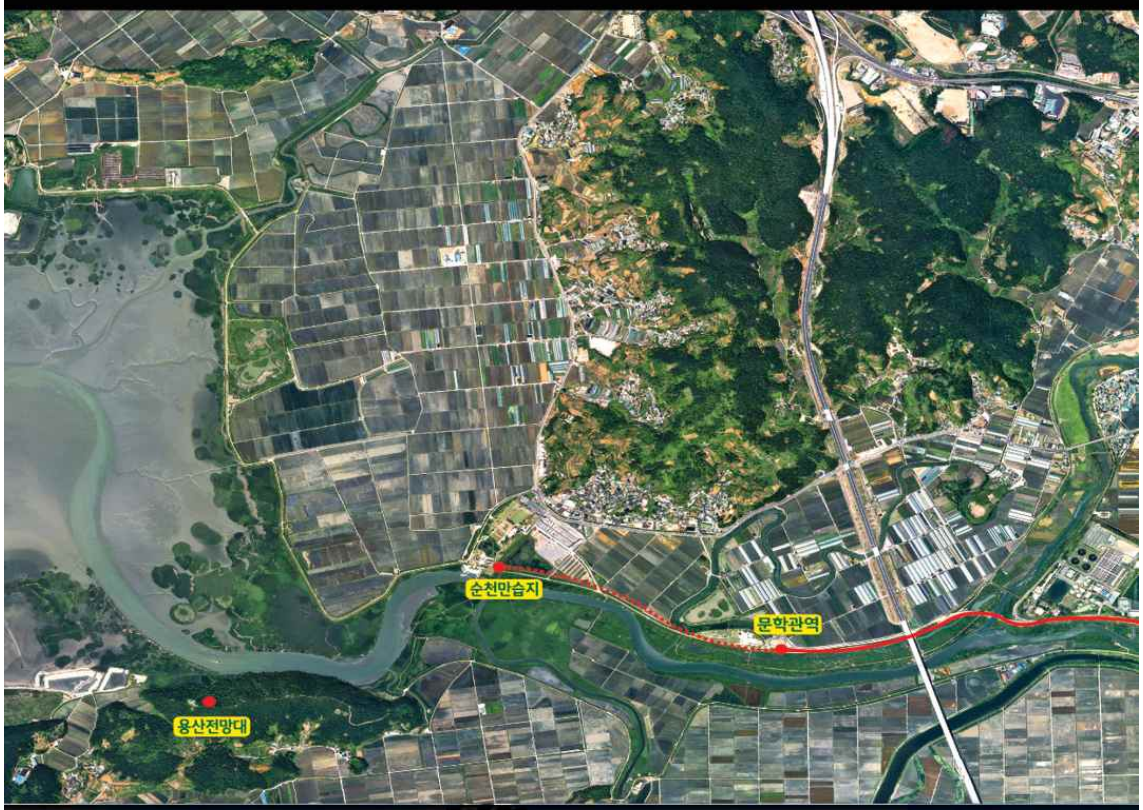
순천만 보존을 위한 에코벨트 조성,
그 시작이 되었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전 이곳은 그저 넓디넓은 논밭이었으나,
약 1년간 흙을 넣고, 터를 닦기 시작했다.

태풍, 집중호우로 침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시민들의 염원과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정원의 모습은 갖춰져 갔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순천만국가정원은
이제, 순천만 보전을 위한 에코벨트이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생태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명성을 알리고 있다.



용산전망대

순천만자연생태관

순천만습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그리고 5년 후,
순천만국가정원 이야기

순천만 이야기

남해안의 중앙에 위치한 순천만.
순천만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에워싼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다. 순천 시내를 관통하는 동천과 상사면에서부터 흘러온 이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하구까지 약 3㎞ 길이의 강을 따라 5.6㎢(170만 평)의 갈대와 22.6㎢(690만 평)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순천만은 한국에서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연안습지이자 세계5대 연안습지로서,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과 희귀 철새 등이 공존하고 있다. 순천만이 자연·생태 측면에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고 명성을 이어가기까지는 여러 일이 있었지만, 큰 틀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였다.

순천만의 8천 년 역사 중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1992년 동천하류(순천만상류) 정비사업계획이 세워졌다.
1996년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79마리가 최초로 발견되었다.
1997년
순천시민단체가 동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골재채취사업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2002년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순천만자연생태관이 건립되었다.
2003년 순천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6년 순천만습지가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었다.
2007년
순천만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순천만의 지속가능발전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
순천만 주변보전을 위해 약 960만㎡를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했다. 그리고 주변지역 상가건물 7동을 이전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철새 탐조대와 쉼터로 바꾸었다. 흑두루미 등 철새보호를 위해 전봇대 282개를 철거하고, 이 지역을 친환경단지로 가꾸어 철새쉼터로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연간 200만 명이 순천만을 찾게 되면서 또 한 번 훼손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순천만생태관을 5km 후방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이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이다. 국제습지센터건립계획을 세울 당시 연향3지구가 개발되고 있었다. 습지센터를 옮기더라도 도시가 순천만 방향으로 개발된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어 오랜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습지센터 건너편 부지(현재 정원부지)에 정원조성을 계획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 당시 순천시가 추진하던 정원조성사업이 국내에서는 최초이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할 근거도 딱히 없었다. 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국제행사로서 승인을 받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탄생한 결과가 바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다.

순천만 보전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이 되기까지

1992
- 동천 하류 (순천만상류) 정비사업 계획

1997
- 골재채취반대 시민운동 순천만갈대제
- 민간 거버넌스 구성

2002
- 남해안 관광밸트 순천만자연생태관 건립

2003
- 습지보호구역 지정
- 순천만 생태보전지구 지정

2005
- 철새보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
- 인근 나대지 내륙습지 복원 (약 13.7ha)

2006
- 람사르협약 등록
- 순천만 천문대 건립

2008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순천만 가꾸기 (고엽갈대 제거 등)
-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구상

2009
- 전신주 지중화 및 철거 (282개소)
- 볏짚 존치 및 경관농업 사업

2013
- 201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개최

2014
- 순천만정원 영구개장 (명칭변경)

2015
- 순천만국가정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협약 등록

2016
- 2016 순천만국가정원 정원산업디자인전

목차

순천만 이야기

순천만국가정원 이야기

세계정원 구역

01. 지구동문

세계정원

02. 프랑스정원
03. 독일정원
04. 영국정원
05. 네덜란드정원
06. 스페인정원
07. 이탈리아정원
08. 미국정원
09. 중국정원
10. 일본정원
11. 태국정원

테마정원

12. 순천호수정원
13. 갯지렁이 다니는 길
14. 야수의 장미정원
15. 흑두루미 미로정원
16. 바위정원
17. 무궁화정원
18. 도시숲
19. 실내정원
20. 수국원

어울림정원

21. 참여정원
22. 한평정원
23. 동천갯벌공연장
24. 한방체험센터
25. 약용식물원
26. 식물공장
27. 메타세쿼이아길

습지 구역

28. 나눔숲
29. 생태체험장
30. 비오톱습지

습지센터 구역

31. 빛의 서문
32. 순천만국제습지센터
33. 순천만WWT습지
34. 꿈의 다리
35. 스카이큐브
36. 에코지오 온실

수목원 구역

37. 한국정원
38. 나무도감원
39. 철쭉정원
40. 남도숲길
41. 편백숲
42. 늘푸른정원
43. 수목원 전망지
44. 생각쉼터

순천만국가정원 이야기

45. 동천이야기
46. 문턱없는 화장실
47. 초가쉼터, 갈대쉼터
48. 잔디수로이야기
49.

2016순천만국가정원
정원산업디자인전

50. 조형물 이야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의미

(순천만-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천만의 가치

지금의 순천만국가정원이 탄생하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시발점은 순천만이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서 2003년 습지 보호지역, 2006년 람사르협약 등록, 2008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41호로 지정돼 농게, 칠게, 짱뚱어 등과 같은 갯벌 생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특히,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을 피해 올해 순천만습지를 찾아온 세계적인 보호종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가 역대 최대개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순천만습지를 찾아온 두루미류는 2017년 11월 1일 기준 1753마리로 관측됐다. 종류별로는 흑두루미 1748마리, 검은목두루미 3마리, 캐나다두루미 2마리다. 순천만을 찾아오는 흑두루미는 매년 1700마리 이상이 월동하며, 10월 중순에 찾아와 이듬해 4월 초까지 약 6개월 가량 머문다.

순천만이 이토록 세계적인 두루미 월동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안정적인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지역민과 시민단체, 순천시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연안습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져온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천만을 보호하자

하지만 순천만을 찾는 두루미의 수가 급증하기 이전, 순천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던 시기가 있었다. 순천만은 2002년 1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연간 200만 명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한 자동차 매연, 소음, 환경 파괴 등 순천만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의 거리는 약 5㎞다. 순천시는 민과 관, 시민 단체와 토론하면서 절대 보전공간인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순천만의 입구를 순천만에서 5.2킬로미터 떨어진 전이공간이자 박람회장이었던 지금의 공간으로 옮겼다.

순천만 습지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순천만과 도시 사이에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한 것이 대한민국 최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이어진 것이다.

국가정원으로의 도약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축구장 면적(7140㎡)의 155배 규모인 111만2000㎡ 공간에서 열렸다. 정원박람회는 세계정원 11, 참여정원 61, 테마정원 11개 등 23개국 83개 정원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꿈의 다리, 한방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정원박람회는 국제 행사 중 최장기인 6개월간 개최한 박람회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총 440만명의 관람객 중 유료 관람객이 87.7% 인 386만 명을 기록해 지자체가 주최하는 국제행사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박람회 조성과정에서 고속도로 공사장의 폐자원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 창조경제의 모델로 평가 받았다. 여기에 전문 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한 문화행사로 품격 높은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정원이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립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자리잡기까지

(순천만정원-순천만국가정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순천만정원으로 재탄생하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부분의 박람회는 산업박람회로, 박람회 기간 중 몇 명이 방문했는가 보다 박람회가 끝난 후 사후 활용이 더 큰 과제로 지적 된다.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에 대해 박람회 준비 기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그 결과 21세기 생태와 문화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을 담기 위해 정원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으로 2014년 '순천만정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영구 개장했다. 더 나아가 온 국민에게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새로운 정원 산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의 역할을 '순천만정원'이 하게 된 것이다.

순천만정원에서 국내 최초

국가정원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으로

2014년 2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2014년 12월 29일 순천만정원을 모태로 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의결로 통과하면서 마침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20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한데 이어 7월 21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난 2015년 9월 5일, 비로소 '순천만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정원으로 가꾸고 보존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의 비젼

순천만국가정원은 배움과 놀이의 공간, 휴식과 치유의 터전으로 순천 시민 누구나 행복한 도시, 일자리와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정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순천만 자연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정원을 조성한 세계최초 사례를 남긴 순천만국가정원은 국민의 사랑과 국제적으로 소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또, 국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제1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교과서에서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방문하는 수학여행의 명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대한민국에는 없는 새로운 정원문화의 첫 출발지로 정원문화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게 될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스토리 맵

습지센터 구역

31. 빛의 서문	104p
32.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06p
33. 순천만WWT습지	112p
34. 꿈의 다리	114p
35. 스카이큐브	116p
36. 에코지오 온실	118p

수목원 구역

37. 한국정원	122p
38. 나무도감원	128p
39. 철쭉정원	131p
40. 남도숲길	132p
41. 편백숲	133p
42. 늘푸른정원	134p
43. 수목원 전망지	136p
44. 생각쉼터	137p

순천만국가정원 이야기

45. 동천이야기	140p
46. 문턱없는 화장실	141p
47. 초가쉼터, 갈대쉼터	142p
48. 잔디수로이야기	144p
49. 2016순천만국가정원 정원산업디자인전	146p
50. 조형물 이야기	152p

세계정원 구역

01. 지구동문	20p
세계정원	
02. 프랑스정원	22p
03. 독일정원	24p
04. 영국정원	26p
05. 네덜란드정원	28p
06. 스페인정원	30p
07. 이탈리아정원	32p
08. 미국정원	34p
09. 중국정원	36p
10. 일본정원	38p
11. 태국정원	40p
테마정원	
12. 순천호수정원	42p
13. 갯지렁이 다니는 길	48p
14. 야수의 장미정원	50p
15. 흑두루미 미로정원	52p
16. 바위정원	54p
17. 무궁화정원	56p
18. 도시숲	58p
19. 실내정원	62p
20. 수국원	66p
어울림정원	
21. 참여정원	68p
22. 한평정원	84p
23. 동천갯벌공연장	86p
24. 한방체험센터	88p
25. 약용식물원	90p
26. 식물공장	92p
27. 메타세쿼이아길	94p

습지 구역

28. 나눔숲	98p
29. 생태체험장	99p
30. 비오톱습지	100p

세계정원 구역

01지구동문

지구동문은 지표를 뚫고 올라온 지구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극대화한 문이다. 우뚝 솟은 석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디자인함으로써 역동적인 지구의 힘을 담아내고자 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크게 동쪽 세계정원 구역과 서쪽 습지센터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지구동문은 동쪽 입구이자 국가정원의 정문이라 할 수 있다.

지구동문은 의도적으로 동선을 감추고 눈앞의 풍경을 가리도록 했는데, 더욱 극적이고 시원한 풍경을 선사하기 위한 연출인 셈이다.

박람회장 당시 주출입문이었던 동문에는 목백합나무, 후박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철쭉, 황금사철, 개별꽃 등을 식재하였으며, 매표소와 화장실 등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시설 4동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구동문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장소이자 방문객들이 입구

에서부터 수직으로 솟아오른 자연 질감 벽체를 통해 땅의 에너지를 듬뿍 받으며 들어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공간이다.
지구동문을 지나 박람회장에 들어서면 거대한 동문 뒤에 어떤 풍경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객들로서는 탁 트인 호수와 솟아 있는 여섯 개의 봉우리를 보며 신선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

02 프랑스정원

프랑스정원은 총 면적 4,529㎡(약 1,370평)로 프랑스 낭트시에서 설계를 담당하여 베르사유궁전과 빌랑드리성을 모델로 바로크 시대 건축 양식을 도입한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고성의 역할을 하는 레스토랑을 함께 건축하였다. 프랑스정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문양의 자수화단, 연못, 분수, 질서 있게 식재한 수목 등을 배치하여 통일성을 추구함으로써 웅장한 정원미를 보여준다.

순천과 낭트의 인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프랑스 루아르 계곡의 대도시 낭트는 강의 하구에 위치한 도시라는 점, 비슷한 인구수와 녹색도시라는 점에서 순천시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2003년 낭트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동산을

주제로 동산을 조성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그랑블로트로 공원 내에 순천동산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2009년에는 순천만에 낭트정원이 조성되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프랑스정원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 정원을 만들며 절대군주의 욕망과 철학을 표현했던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생태보호라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까지 녹여 냈다. 프랑스 국민들이 베르사유 정원을 소중한 유산으로 자랑하듯 순천만도 생태정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로 역사에 남길 소망하며 조성하였다.

2017년 7월에는 프랑스 낭트시의 문화예술 우호교류 대표단이 프랑스정원에서 '프랑스 낭트시 문화체험행사'를 하여 프랑스 낭트에서 직접 공수해 온 식재료로 만든 현지음식을 선보이며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2004년부터 이어온 순천시와 낭트시의 인연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03 독일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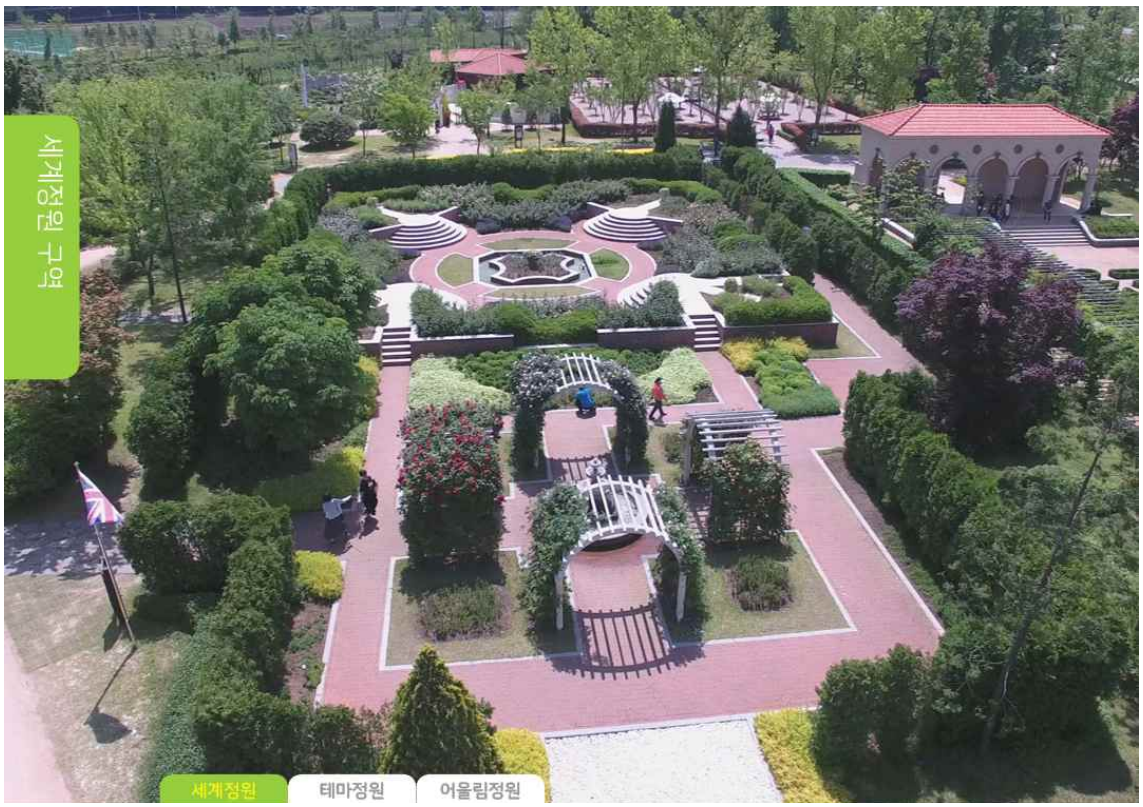
독일정원은 총면적 2,006㎡(약 606평)로 독일 정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푀르스터의

이름을 딴 독일 포츠담의 칼 푀르스터 선큰정원을 모델로 디자인되었다. 서양측백나무, 주목, 후박나무 등 교목 607주와 치자나무, 꼬리조팝나무, 수수꽃다리 등 관목 152주, 독일붓꽃, 펜스테몬, 흰알리움 등의 초화류 67종 6,868본이 식재되어 있다.

특히 칼 푀르스터가 개발한 선큰가든 방식은 정원을 지면보다 낮게 계단식으로 구성하여 높은 지면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특징으로 수많은 야생화가 조화롭게 층을 이루는 장관을 연출한다. 칼 푀르스터재단의 고정희 박사가 설계를 담당하고, 베를린 공과대학 조경학과, 드렌스덴 공과대학 조경학과 교수의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독일 정원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어진 토양과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정원을 실내 공간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독일식 건축의 감각적 특징이 돋보인다.

독일의 국민자동차로 일명 '딱정벌레차'로 불리며 1970년대부터 독일에서 30여년을 생활했던 파독근로자 부부가 순천시에 기증한 차 이다.



04 영국정원

영국정원은 풍경화를 그리듯 정원의 구도를 미리 계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2,300㎡(약 696평) 면적에 서양측백나무, 칠엽수, 느릅나무 등 교목 280주와 서양호랑가시나무, 황매화, 삼색병꽃 등 관목 390주, 16종 8,970본의 초화류와 장미 12종 880주가 식재되어 있다.

찰스 젱스의 자문을 얻어 빅토리아시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 팜(Folly farm) 가든을 재현하였다. 팜 가든은 식생활에 쓰이는 식물과 정원이 결합된 것으로, 영국의 생활문화와 정원이 결합한 형태다. 영국의 식생활과 밀접한 라벤더 등의 각종 허브가 식재되어 있으며,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호적한 오솔길은 조용한 전원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한다.

영국인들은 정원에서 가족 나들이를 즐기고 결혼식을 하고 예술을 즐겼으며, 언제나 생활 가까이 정원을 두고 즐겼다. 첼시플라워쇼※는 월드컵보다 인기가 있으며,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가 가드닝인 나라가 영국이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이 조성되었다. 빅토리아시대 폴리 팜 가든의 아름다움을 재현한 영국정원은 볕이 좋은 오후를 캔버스에 담은 것처럼 한가롭고 조용한 전원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첼시플라워쇼[Chelsea Flower Show]

1862년 영국 그레이터런던주 중부의 켄징턴에서 열린 '그레이트 스프링 쇼(Great Spring Show)'에서 유래하였다. 1913년부터 첼시 지역에 있는 왕립병원의 정원으로 전시장이 고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영국의 왕립원예협회(RHS : Royal Horticulture Society)에서 주관하며, 개최 시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매년 5월 하순의 4~5일 동안 열리는 단기간 행사로서, 평상시에는 공원인 곳에 가설공간을 만들어 행사가 열린다. 정원 경연대회가 중심이 되며, 참가 업체나 단체는 왕립원예협회에서 18개월 전부터 그 기획서를 검토하여 엄격하게 선발하는데, 새로운 정원 디자인이나 새로운 재배 기술을 가진 업체를 먼저 선발한다. 특히 치열한 '모델정원'의 경우 전체적인 조화, 디자인과 건축, 정원의 식물, 특별한 장식 등의 4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한다.

05 네덜란드정원

네덜란드정원은 큐켄호프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의 설렘을 담아 지구의 정원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생태수도의 봄을 알리는 마음으로 조성하였다. 다양한 색상의 튤립이 각종 허브와 어우러져 원색의 자연을 그대로 보여준다. 4,656㎡(약 1,408평) 면적에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와 튤립을 기본으로, 느티나무·태산목 등 교목 38주와 튤립·아주가·불로화(아게라덤) 등 25종 449,900본의 초화류,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다.

네덜란드정원은 2002할레머미어박람회 기본설계 및 2010상해세계박람회 Central Green Park, 2010대만국제꽃박람회 Dutch Entry 디자인 등을 담당했던 네덜란드 조경디자이너 니크 로즌(Niek Roozen)이 디자인을 맡아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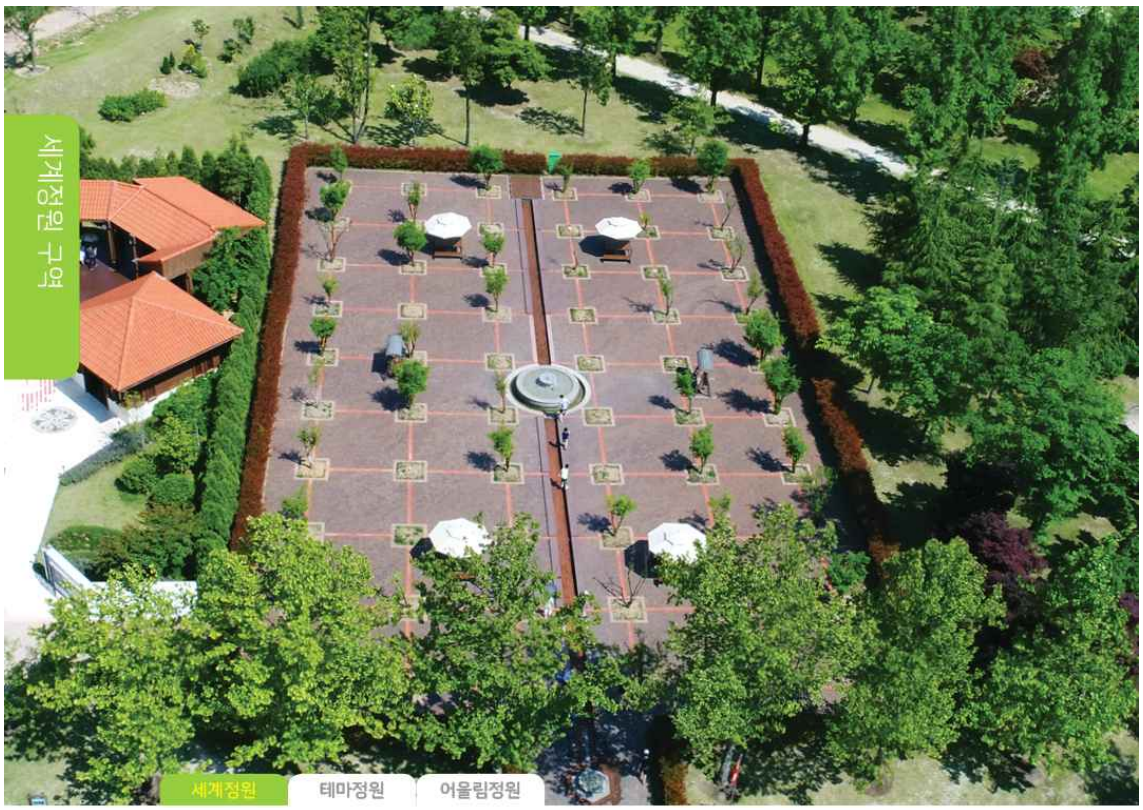
네덜란드는 '유럽의 정원'이자 꽃밭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세계적인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화훼산업을 이끄는 나라로, 네덜란드에 가지 않고서도 네덜란드정원에서 다채로운 꽃 장식을 볼 수 있다. 네덜란드정원에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튤립 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상징인 풍차와 나막신 조형물(klompen)이 설치되어 있는데, 국가정원내에서도 포토존으로 인기를 끄는 대표적인 장소로 뽑힌다.

나무 이야기

히딩크 희망나무 위치 : 네덜란드정원

네덜란드 정원에 들어서면 풍차와 튤립과 더불어 거스 히딩크의 탄생목인 호두나무를 볼 수 있다. 2002한일월드컵, 축구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히딩크 감독의 한국 사랑은 월드컵이 끝나고도 계속 이어진다. 순천 문화생활체육공원 내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히딩크 드림필드 11호'를 건립하는 등 한국 축구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를 맡으며 자신의 탄생목 호두나무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06 스페인정원

스페인정원은 세비야의 오렌지정원을 모티브로 스페인 사라고사의 자문을 통해 2,193㎡(약 663평)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환경적 특성상 오렌지나무 대신 4월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유자나무 60주를 식재하고 수경시설을 재현하였다.

세비야의 오렌지정원은 원형이 보전된 옛 정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에 모세혈관처럼 엮어 놓은 수로는 몇 백 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페르시아의 뛰어난 관수기술을 엿볼 수 있다. 정원박람회장에 재현된 스페인정원에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자라기 힘든 오렌지나무 대신 유자나무를 가지런히 심었다.

중세시대 이후 유럽정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스페인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정원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남부 세비야에는 원형이 잘 보전된 오렌지 정원이 존재한다. 스페인에서는 오렌지나무를 정원에 심어 숲을 만든다. 오렌지나무는 너른 그늘을 만들어 일하던 사람들이 땀을 식힐 수 있도록 해주며, 때로는 상큼한 오렌지 향으로 사람들을 정원으로 불러 들인다.

07 이탈리아 정원

이탈리아정원은 '갯지렁이 다니는 길'을 디자인한 황지해 작가의 자문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가의 빌라 정원을 재현하였다. 2,000㎡(약 605평) 면적에 지중해풍 건축물을 중심축으로 하여 강렬함을 극대

화하기 위해 수목을 정갈하게 배치하고 초화류를 최소화하였다. 편백·이팝나무·층층나무 등 21주의 교목과 돈나무·회양목 등 1,688주의 관목, 숙근샐비어 등 3종 2,330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작은 규모의 언덕과 계곡, 그 사이로 곳곳에 자리 잡은 올리브나무 농장과 포도밭 풍경. 순천만국가정원의 이탈리아정원은 평지가 국토의 25%에 불과한 이탈리아 지형을 반영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하였으며,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가의 빌라정원을 재현하였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막강한 부를 소유한 메디치가의 후원 아래 건축, 조각, 회화, 문학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정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덕분에 이탈리아의 정원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예술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었다. 메디치가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빌라를 여러 채 남겨 놓았는데, 깔끔하고 잘 정돈된 이미지가 특징이다.

08 미국정원

미국정원은 1700년대 농장을 배경으로 넓은 자연이 펼쳐져 있는 버지니아의 자연주의 정원을 되살려 놓았다. 특히 '정원은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며 휴식하고, 동시에 놀이터도 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정원문화와 도심 속 정원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나아가 함께 즐기면서도 개인의 가치가 존중된 정원, 자연을 즐기면서도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원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지구정원의 정신임을 표현하였다. 4,666㎡(약 1,411평) 면적에 캐스케이드 수경시설과 스탠드를 도입하였으며, 백송, 실편백, 낙우송 등 교목 36주, 동백나무, 황매화, 개쉬땅나무 등 관목 1,455주, 델로스퍼마, 금낭화, 아칸서스 등 23종 34,982본의 초화류와 서양잔디 1,718㎡(519평)을 식재하여 자연스럽게 식재된 야생화로 멋을 더한 정원과 각기 다른 공간으로 디자인된 정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순천시의 자매교류도시인 컬럼비아시에서 설계하였으며, 미국 도시공원의 효시가 된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프레더딕 L. 옴스테드와 캘리포니아의 스타일 조경가로 유명한 토머스 처치의 정원철학이 담긴 공간이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은 영국과 유럽정원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정원양식이 나타난다. 북미대륙의 광대한 지형적 특성이 드러나는가 하면, 농장풍경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자연주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중 18세기 버지니아주의 정원 모습을 재연한 미국정원은 대저택과 농장을 끼고 조성된 넓은 정원이 특징적이다. 미국정원 앞에 설치된 조형물은 컬럼비아시에서 '하늘'과 관련된 한국의 속담을 요청하여 보낸 것 중에 채택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09 중국정원

영파시에서 설계한 중국정원은 2,295㎡(약 695평) 규모에 건축물 3동(약 14평, 48㎡) 외에도 수경공간인 거대한 연못에 정자를 배치하고, 석조 장식물과 수목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금목서·회화나무·당광나무 등 교목 278주와 백당나무·남천·꽝꽝나무 등 관목 7,912주를 중심으로 11,731본의 초화류와 잔디를 식재하였다. 특히 청송각과 석조 장식물 등을 통해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백과 축영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꽃과 나비가 있는 정원에 표현하였다.

중국정원은 16세기 중국정원에 중국의 전통정원인 원림을 들여와 꾸몄다. 정원에 심은 수목이 복을 불러온다고 알려진 원림정원은 흙과 돌을 쌓아 만든 인공 산과 연못 주변에 물과 나무, 기이한 암석을 미학적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중국정원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선사해 주며, 숨김과 드러냄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정원은 자연에 대한 회심을 불러일으킨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는 명·청대에 번성했던 170여 개의 특색 있는 원림이 흩어져있다. 그중 60여 개가 현재까지도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19개 정도

가 대외에 개방되어 관광객을 맞이한다. 중국정원은 이러한 원림의 특징을 살려 조성되었으며, 부유한 집안의 딸인 축영대와 가난한 집안의 양산백이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 나비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을 정원 곳곳에 녹여 냈다. 구릉과 물, 다리, 돌, 나무 등을 이용해 전통 조경기법으로 정자와 연못, 교량 등을 조성하여 이루지 못한 사랑을 나눈 두 젊은이의 애틋함을 표현하였다.

중국정원의 청동정

청동정은 중국 고대에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문물로서 공적을 기록하고, 단결, 평화, 발전, 번창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다. 중국 닝보시와 순천시의 우호교류20주년을 맞아 양 시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하며 닝보시가 순천시에 증정했다.

10 일본정원

일본정원에서 정원의 주인은 사람도, 집도 아니다. 정원에 온 세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이 반영된 14세기 일본정원은 석조물들로 장식된 정원과 큰 연못이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가현정원은 1,713㎡(518평) 면적에 소폭포, 석등, 나가야문을 조성하였으며, 소나무와 가시나무 등 교목 239주와 철

쭉·금목서·애기동백 나무 등 관목 1,234주, 초화류 8종 3,990본, 잔디 923㎡(약 279평) 등 세후리 산에서 자라는 수종을 식재하였다. 또한, 고치현정원은 1,448㎡(약 438평) 면적에 정자와 석등을 도입하여 소나무·가시나무 등 230주의 교목과 후피향나무·동백나무 등 635주의 관목, 초화류 5종 4,200주와 잔디를 식재하였다.

사가현 조원건설협회에서 설계한 사가현정원은 산을 배경으로 한 계곡이 있는 일본 전통정원으로 세후리 산과 아리아케 연못을 재현하였으며, 고치현 조원업협회에서 설계한 고치현정원은 연못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로 자연을 표현하는 가레산스이 양식에 따라 바위와 자갈 등 배치하여 고치현의 웅대한 태평양 바다와 험준한 산 등 자연을 표현하였다.

연못이 들어선 정원은 호수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누각이 들어선 정원은 사찰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일본정원은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발현된 곳이다. 흡사 아름다운 호수나 건물을 완벽하게 미니어처로 재현해 낸 듯하다.

11 태국정원

태국의 정원을 떠올리면 사찰, 궁궐, 리조트와 공원의 정원을 생각하게 된다. 커다란 불상이 있는 황금빛 사찰, 유럽풍 건물의 궁궐, 그리고 현대적인 리조트와 유명공원은 모두 특색 있는 정원을 갖추고 있다. 면적 2,278㎡(약 689평)의 정원에는 건축물 등 구조물 5동, 연못 1식, 대나무터널 1식을 주요 시설로 도입하였으며, 워싱턴야자와 코코스야자와 당종려 등의 수목을 식재하여 천연 쿨링 시스템(Cooling System)인 살라타이 건축물과 왕실 정원문화가 보여주는 원색의 강렬한 아열대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국 정부(농업협력부)와 순천시의 상호 교차정원으로 조성된 태국정원은 개방형 건축물로 뜨거운 햇볕과 비를 피하는 데 사용했던 태국의 전통 건축물 살라타이와 대나무 구조물 등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아열대 지역의 열기를 저감하는 지혜로운 생활상을 통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워싱턴야자와 코코스야자 등 열대수목이 식재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중국 서안과 중경에 이어 동남아의 태국 치앙마이에도 순천정원이 조성되었다. 2011년에 개최된 세계꽃박람회에서 순천정원 준공식이 행해진 뒤, 이를 계기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태국 전통정원이 조성되게 되었다.

12 순천호수정원

찰스 젱스가 설계한 순천호수정원은 순천이 생태 도시의 완성이라는 큰 꿈을 품고 지구의 정원으로 성장할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중심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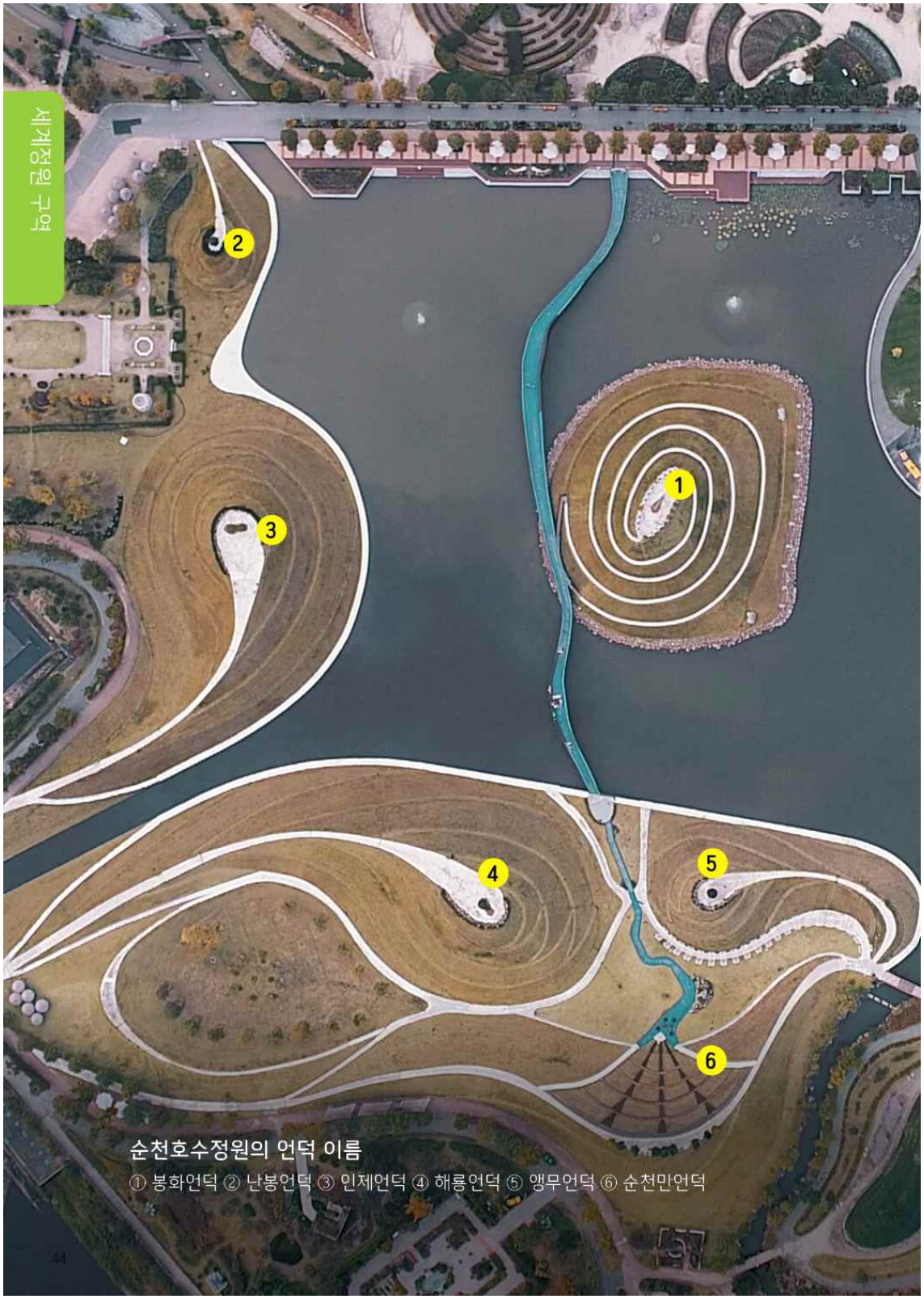
85,000㎡(약 25,712평)의 순천호수정원은 6개의 언덕과 호수, 나무데크로 구성되었다. 찰스 젱스는 순천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동천을 파란색 나무데크로 형상화하고, 호수 중앙의 봉화산을 중심으로 순천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언덕으로 표현하여 난봉언덕, 인제언덕, 해룡언덕, 앵무언덕, 순천만언덕으로 구성하였다. 호수는 기존 도심과 신도심의 소통을 의미한다.

21세기 최고의 건축이론가이자 지형디자이너, 조경가로 평가받는 찰스 젱스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09년 박람회 관계자들이 국제미디어를 통해 찰스 젱스의 작품을 보고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코스믹 스페큘레이션 정원(Garden of Cosmic Speculation)을 방문한 것으로 시작된다. 찰스 젱스와 그의 아내가 만든 개인정원인 코스믹 스페이큘레이션 정원은 2002년 조성되었으며, 순천호수정원의 모

태라고 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찰스 젱스의 정원 설계개념과 디자인을 보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여 박람회장 입구에 호수, 정원, 섬과 다리를 조성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찰스 젱스는 '도시 생태축 복원'이라는 박람회 취지에 참여를 결정했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박람회를 위한 일회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보전되고 유지되는 정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일시적인 정원이나 공원이 아닌 생태적인 정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정신이기도 하다.

설계자 찰스 젱스는 다른 나라에서는 배경이 되고 있을 뿐인 산지가 한국에서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가상실험을 거쳤다. 산과 도시, 습지, 그리고 이러한 전체 생태계를 연결하고 있는 강을 일체화된 하나로 형상화할 방법을 고심한 끝에 '생태라인의 유지'라는 시각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산과 봉우리를 대표하는 둔덕을 정원 내에 디자인하였으며,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물의 기본적인 역할은 작은 호수로 나타내었다. 호수를 채운 물은 동천의 물길을 끌어와 조성하였다.

순천호수정원의 6개 언덕은 조성 당시에 찰스 젱스가 디자인하고 그의 딸인 릴리 젱스가 한국을 오가면서 지도 감독하여 완성하였다. 찰스 젱스가 즐겨 사용하는 등고선 정원이라고 일컫는 그만의 독특한 마운딩 기법으로 설계되었으며, 흙으로 된 인공언덕과 잔디로 구성된 등고선 파형으로 조성되었다.
그만의 독특한 기법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과 마운딩 조성에 따른 신공법이 도입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겨울철 잔디 시공으로 활착 전 강우에 의해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순천시의 감독공무원들과 시공사, 기술진은 매주 영국에 있는 찰스 젱스, 릴리 젱스와 영상회의를 하여 문제를 극복해 나갔다.



순천호수정원의 언덕 이름
① 봉화언덕 ② 난봉언덕 ③ 인제언덕 ④ 해룡언덕 ⑤ 앵무언덕 ⑥ 순천만언덕

① 봉화언덕

순천만국가정원 내부 공간 중 가장 고도가 높은 봉화언덕(16m)은 순천시 도심에

자리 잡은 봉화산의 경관을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축소한 언덕이다. 순천만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정원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지점으로, 봉화언덕에 오르면 국가정원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② 난봉언덕

고려 정종, 박영규의 4대손인 박난봉 대장군의 기상을 받은 성공과 명예를 상징하는 언덕이다.

③ 인제언덕

고려 때 왜구의 침입을 막아냈던 박난봉 장군은 죽어서 인제산의 신선이 되어 고을을 지킨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순천의 흥망을 좌우한 인재를 형상화한 언덕이 바로 인제언덕이다.

④ 해룡언덕

삼국시대, 해상교통 요충이라는 지리적 잇점을 바탕으로 해룡산에 산성을 쌓았다. 해양수도로서의 '성취'를 상징한 언덕이 바로 해룡언덕이다.

⑤ 앵무언덕

순천 계족산에서 분기한 여수기맥이 이어지는 앵무산의 이름을 딴 언덕이다.

⑥ 순천만언덕

순천만의 이름을 딴 언덕으로 순천만을 형상화하였다.

에코 라인(Eco Line)

순천호수정원 중앙의 동천 호수길을 걷다 보면 빨간색 라인이 그려진 지점에 다다른다. 이곳에는 작가의 요구에 따라 상부와 물이 닫는 수면 부에 빨간 라인을 그렸는데, 이 라인은 찰스 젱스가 절대로 지우지 말 것을 누차 강조했던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조성 의미인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에코 라인을 표현한 것이다.

"순천호수정원의 기본 개념은 '중심부에 자연을 품고 있는 도시(Holing the Eco Line)', 에코 라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산은 물을 만들고, 물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와 경작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비옥한 토양은 도시의 만, 즉 순천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천의 산과 순천만을 생태 환경의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찰스 젱스는 생태에 취약한 습지 등을 보존하려는 방법으로 에코 라인을 만들고, 그 안에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비축 공간으로 정원을 만들어낸 것이다.

순천호수정원의 숨겨진 에코 라인

잔디마당

순천호수정원 옆에 자리한 잔디마당은 조용하고 정적인 연출이 필요한 행사들을 위한 무대이자 광장이다. 잔디마당 역시 순천호수정원을 디자인한 찰스 젱스의 작품으로 대부분의 야외공연장이 벽돌이나 돌로 조성되어 1년에 단 몇 차례 공연으로 평상시에는 흉물로 남아있게 되는 반면, 잔디마당은 공연이 없는 평상시에도 푸른 잔디 위에서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즐기며 순천호수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조성하였다.

잔디마당은 숲과 식물의 시작인 새순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는데 봉화언덕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언덕에 올라 잔디마당을 내려다보면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 여겼던 관람석이 사실은 새순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곳에서 열린 조수미가 참여한 클래식 공연을 보기 위해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모이기도 하였으며 매년 9월이면 국제교향악축제가 열린다.

나무 이야기

S자 소나무 위치 : 잔디마당

수령 60년으로 추정되는 이 소나무는 그 형상이 순천만의 S자 모양을 닮아 눈길을 끈다. 잔디마당에 S자로 휜 채 서 있는 소나무의 원래 있던 위치는 상사호 주변 야산 묘지였다. S자 소나무를 박람회장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묘지 주인의 승낙과 주암댐 관리단의 승인이 필요했다. 허가를 받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나무가 박람회장에서 살아간다면 그 의미가 더 특별할 것 같다'는 여러 사람의 바람과 노력 덕분에 이 소나무는 박람회장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13 갯지렁이 다니는 길

갯지렁이 다니는 길은 자유분방한 선들을 입체적으로 드로잉 한 듯 조성한 28,000㎡(8,470평)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순천만의 갯지렁이가 몸으로 갯벌을 밀고 간 듯 밑으로 푹 꺼진 선큰가든 형식으로 조성하였다.

작은 생명체인 갯지렁이는 대부분 사람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존재지만, 순천만 갯벌에서 갯지렁이는 갯벌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원 내의 길에는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다 버리기 쉬운 철근이나 나무, 플라스틱 등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식물과 꽃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을 갯지렁이가 정화하여 지금의 아름다운 순천만이 존재하며 갯지렁이처럼 우리도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중앙에 위치한 순천호수정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천에서 유입시킨 물이 흘러 호수로 흘러가는 과정을 담아 마음을 씻는 폭포를 조성하였다. 폭포에는 '대지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인의 두상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이 호수정원으로 흘러가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갯지렁이 형태의 갤러리와 도서관, 쥐구멍 카페, 개미굴 휴게공간, 미친개정원, 씨뿌리는 손, 씨뿌리는 발, 언덕산책로, 생각하는 의자, 덤불숲 파고라 등 각자의 이야기와 개성을 담아 정원 안에서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갯지렁이 도서관은 갯지렁이가 갯벌을 정화하듯, 책을 통해 마음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수상한 황지해 작가는 갯지렁이 다니는 길과 동천갯벌공연장 조성을 위해 6개월간 순천에 머무르며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한땀 한땀 정원을 조성하였다. 황지해 작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재가공한 '모퉁이에 비추인 태양', DDP갤러리문에서 전시한 '보이는 집, 여섯 개의 방', 서울로 7017 개장에 맞춰 서울역 광장에 설치한 '슈즈트리' 등 박람회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4 야수의 장미정원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장미정원을 상상하며 디자인된 야수의 장미정원에는 2013국제정원박람회 당시 골드러프, 골든플러쉬, 바닐라퍼퓸, 벨라로마, 시에스타, 아스피린로즈, 앙드레르 노틀, 퓨어포이트리 등 30여 종이 넘는 수만 송이의 장미가 식재하였으며, 이후 스탠다드 장미를 추가 식재하였다.
대부분의 꽃들이 2주면 시들어지는 데 비해, 시든 장미꽃 을 매일 잘라주면 계속해서 피어난다. 때문에 순천만국가정원의 장미정원은 장미꽃이 절정인 5월에 가장 아름답지만, 11월까지도 만발한 장미꽃을 볼 수 있다.

야수의 장미정원은 지구동문으로 입장시 가장 먼저 둘러볼 수 있는 정원으로, 영국정원 내에도 장미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장미를 좋아하는 관람객이라면 두 장소를 방문하여 비교하는 재미도 즐길 수 있다. 또한 밤이되면 오색빛깔의 LED 장미를 볼 수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생화 장미와 LED 장미의 아름다운 조화로 후각과 시각, 감성을 만족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나무 이야기

장사익 소리나무 위치 : 야수의 장미정원

국악과 가요를 절묘하게 접목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여내는 듯한 창법을 구사하는 장사익,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드는 100인'에 선정된 그는 자연을 닮은 목소리로 삶을 노래하는 소리꾼이다. 자연과 함께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이야말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제격이었으며,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기증한 느티나무가 바로 장사익 소리나무이다. 장사익의 탄생목이기도 한 느티나무는 관람객에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싱그러운 휴식처를 제공한다.

15 흑두루미 미로정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이자 순천의 시조인 흑두루미 모습으로 꾸며진 미로정원에는 에메랄드골드, 서양측백나무, 홍가시나무 등 교목 6,523주를 흑두루미 형상으로 식재하였다. 바닥은 삼나무를 깔아 푹신함과 함께, 미로정원을 통과할 때 까지 은은한 향을 맡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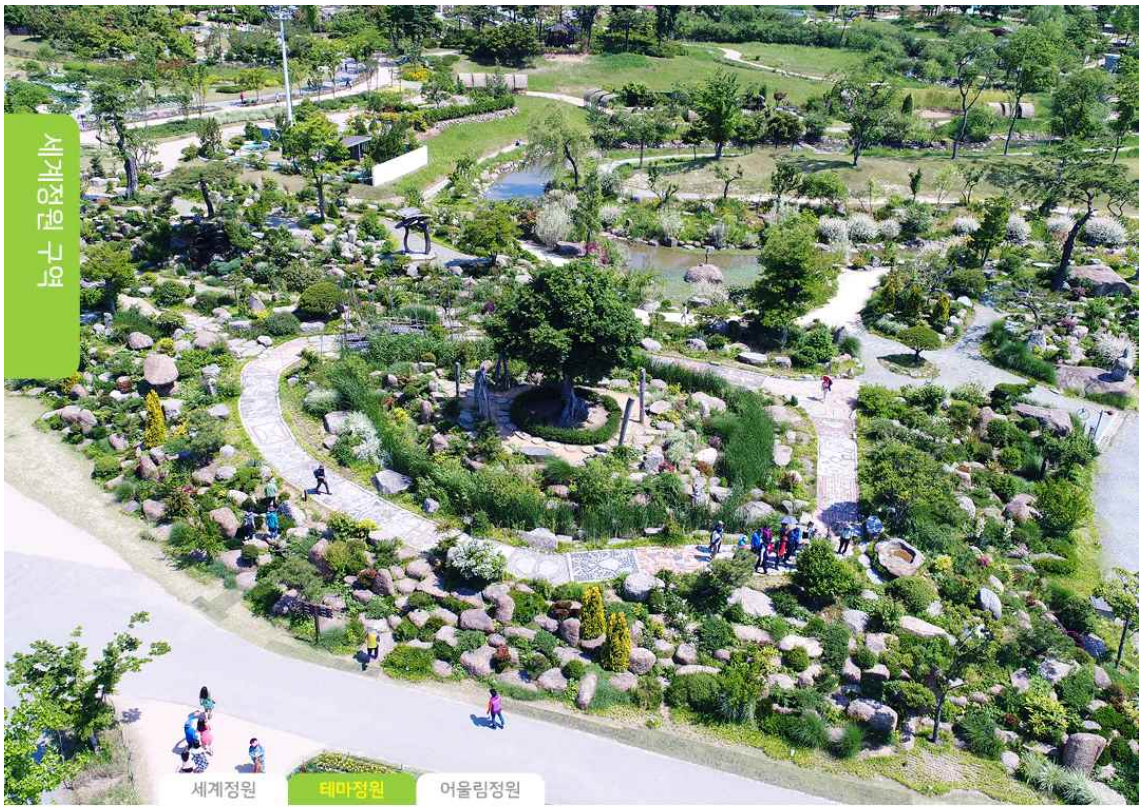
미로정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정원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순천만국가정원에는 흑두루미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흑두루미 미로정원을 비

롯하여 국가정원 내에 숨겨진 흑두루미를 찾아보면서(호수정원 앞 조형물, 수목원 전망지 아래 수풀 장식 등) 흑두루미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탈출하기 힘든 미로정원에서 쉽게 출구를 찾는 방법은 한 방향으로만 도는 것이다. 미로의 오른쪽 또는 왼쪽 벽에 한 손을 댄 다음, 손과 벽 사이의 접촉을 유지한 채 계속 걸어 나가면 흑두루미 미로정원에서 탈출할 수 있다.

미로정원의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중심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하면, 높은 곳에서 탈출하는 길을 파악할 수 있다.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탈출하는 재미도 있다. 또한 미로정원에 식재된 식물은 아이들에게는 높이가 다소 높아, 숨바꼭질하기 제격인 장소로 사랑을 받는다.



16 바위정원

크고 작은 바위들이 어울려 강인한 자연의 힘을 전하는 바위정원은 돌 틈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까지 어우러져 생명력 넘치는 정원을 보여준다.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며 굳은 의지와 견고함을 상징하는 바위는 십장생에도

포함될 만큼 예로부터 귀하게 여겼으며, 우리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바위정원은 박람회장 전체 공간 중 가장 먼저 완성된 정원으로, 정원에 사용된 바위는 목포-순천 간 고속도로 공사 당시 캐낸 크고 작은 바위들이다. 바위뿐 아니라 기와도 재활용하여 작은 소망의 다리를 만들었다.
고산식물의 경우 사면에서 암석을 끼고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지뿐만 아니라 초지·습지·물가 등에서도 잘 자라는 종류를 선택하여 암석의 경사면과 수로변에 식재하였다. 또한 순천만의 물결이 연상되도록 맥문동 군락을 식재하였다.

바위정원에 또 다른 볼거리인 장승과 솟대 등의 조형물에도 각각의 의미가 있다. 장승은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해오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도입하였으며, 철새들의 서식지가 된 순천만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오리나 기러기 등 물새로 장식된 조형물인 솟대를 설치하였다.

나무 이야기

600살 할아버지 팽나무 위치 : 바위정원

제주도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살아남은 수령 600년 된 팽나무. 1,112,000㎡의 박람회 부지를 채울 꽃과 나무를 구해올 걱정에 근심하던 박람회조직위원회로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남의 한 조경사업가인 박병화씨가 제주도에서 가져온 귀한 나무를 영호남의 우정을 기원하는 뜻에서 기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제주도의 물이 부족한 암반 지역에서 600년을 살다 옮겨 온 이 팽나무는 제주도의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암반 지역의 악조건을 견디며 살아남았다. 부족한 수분을 얻기 위해 자기 몸에 스스로 7개의 구멍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구멍에 물이 고이게 해 저장하며 600년을 버텨 온 할아버지 팽나무는 지난 5년 새 두 번이나 뿌리돌림(이식 전 뿌리를 미리 절단해 잔뿌리가 생기게 함으로써 이식 후 옮긴 땅에서 빨리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하기도 했다.

17 무궁화정원

무궁화정원은 2,000㎡ 면적에 다양한 무궁화를 식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원하고자 조성한 정원이다.
단순한 무궁화 식재를 넘어 정원 자체가 한 송이 무궁화가 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중심에는 무궁화 모양의 분수를 배치하였다.

수자원공사로부터 헌수 받은 배달, 한사랑, 아사달, 옥토끼 등 73품종 약 2,000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다.
광복 이후 공식적으로 나라꽃으로 정해진 무궁화는 우리나라에서 품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름에서도 한국적인 특색을 엿볼 수 있다.

국내에는 여러 무궁화정원이 있지만 순천만국가정원에 식재된 무궁화의 품종은 다른 곳에 비해 3배 이상 많으며 정원 자체가 한 송이의 무궁화가 되도록 디자인한 곳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국가브랜드 차원으로 평가되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무궁화정원은 국가정원 1호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세계에 명성을 알

리고 있는 순천시는 2018년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무궁화 명소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18 도시숲

도시숲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로변 경계에 조성된 숲으로 도로변의 가로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울타리와 같은 숲이다. 69,663㎡ 면적에 팽나무, 느티나무, 편백나무 등 큰 나무 1,640주와 철쭉, 히어리 등 25,460주의 관목 및 초화류,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다.

박람회 동안 도시숲은 방문객과 차량으로부터 박람회장의 조경과 수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로변에 조성하였는데, 1,000여 그루의 큰 나무들을 식재하여 도심의 공해로부터 박람회장을 지키는 에코벨트이자 관람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었다. 도시숲은 산림청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조성되었다. 식재된 나무는 시유림에서 6개월 이상 뿌리돌림 하여 이식한 나무들로 최소 20년~ 50년 된 나무도 있다.

오늘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조성 대안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도시숲 조성이 활발하다. 잘 조성된 도시숲은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데, 분진의 70~90%를 감소시키고 기후를 조절해 여름철 기온을 3~7%까지 낮춰준다. 이밖에도 밀도 높은 도시숲은 건조한 도시의 습도를 조절해주며 차량 소음을 80%까지 감소시켜 준다.

서양 잔디광장

도시숲을 이루고 있는 1만 평의 넓은 서양 잔디광장은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거닐기 쉽도록 조성되었다. 주중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야외학습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가족과 어린이가 가족캠핑을 즐기기 위해 서양 잔디광장을 찾는다. 골프장 마운딩 전문가가 부지정리에 참여해 거닐기 편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광장을 조성한 서양잔디는 1년 중 2개월만 누렇게 색이 변하고 사계절 푸르름을 주어 어린이의 푸른 꿈을 키워준다.

나무 이야기

안타까운 형제 연리목 위치 : 도시숲

한 몸으로 뒤엉켜 자랐던 팽나무와 때죽나무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의 도유림에서 옮겨왔다. 지금은 팽나무와 때죽나무가 한 몸인 연리목이지만, 원래는 팽나무, 때죽나무, 산벚나무가 하나였던 삼형제 연리목이었다. 수령 50년의 팽나무와 수령 30년의 산벚나무, 수령 10년의 때죽나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이 좋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태풍 볼라벤의 강한 바람이 산벚나무를 부러뜨려 버렸고, 지금의 팽나무와 때죽나무만 남게 되었다. 수령 50년의 팽나무와 수령 10년의 때죽나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이좋게 자라는 모습은 우애 좋은 형제처럼 정겹고 흐뭇해 보인다. 한 몸으로 우애를 자랑하는 팽나무와 때죽나무에게 소원을 빌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은 소식이 줄줄 따라 온다고 하니 이 연리목에게 꼭 소원을 빌어보자.

19 실내정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기획한 실내정원으로 희귀식물들을 식재하여 박람회 주제를 시각화한 <정원 속의 자연>과 한국정원의 우수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아미 화원>으로 구성되었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공통 자산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기 때문에 많은 식물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라지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자 준비된 곳이다.

정원 속의 자연

자연 그대로의 순수정원이 지닌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정원으로 바오밥나무, 세상에서 가장 큰 씨앗인 코코 드 메르(바다야자수) 등 희귀 식물을 식재하여 식물 종 다양성 등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를 시각화한 공간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시정원, 정글정원, 초이스정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인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정원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원시의 자연 : 중생대 쥐라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원시림의 분위기를

연출한 정원으로, 생명의 폭포와 더불어 다양한 소철류와 화석식물 등을 이용해 자연 그대로의 정원 원형을 보여준다.

정글의 풍경 : 열대우림지의 다양하고 희귀한 식물이 가득한 정글의 풍경은 식물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공간이다. 희귀식물과 자연물, 토속 민속품 등으로 구성하여 생태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인류의 선택 : 인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미래의 정원 모습을 연출한 공간이다. 인류의 선택으로 사막화된 정원에는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눈길을 끌며, 상반된 미래상인 벽면녹화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심어준다.

우아미 화원

우리 선조들의 정원에 대한 철학을 담은 공간으로 한국 전통 정원의 우수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시한 정원이다. 옛 선비들이 자연을 통해 인격수양을 하고, 본연의 가치에 순응하던 여유와 기품을 5개의 공간으로 담아내어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원연출과 자연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화원의 메시지 : 정원 안의 생태 갤러리 '우아미 화원'의 초입으로, 선비수, 기품과 여유를 강조한 전시 연출이 돋보인다. 서양과 다른 정원관을 통해 전통 정원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선비의 루 : 유박(1730~1787)의 <화암수록>을 배경으로 선비들의 화목구품에 대한 내용을 십장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오브제와 영상으로 만난다.

최고의 온실 : 세계 최고의 온실로, 조선 시대 초기 전순의(연대 미상)가 편찬한 <산가요록>의 복제본을 전시하고 서양보다 170년 앞서 만들어진 온실을 재현하였다.

화원산책 : 조선 시대 풍속화와 산수화에 나타난 꽃과 나무를 통해 선조의 풍류와 여유를 재발견하고, 강희안(1417~1464)이 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예서인 <양화소록>을 토대로 선조들의 원예 기술을 접한다.

20 수국원

여름 꽃의 여왕인 수국 25종 3,300주를 식재한 공간으로, 수국의 품종별로 붉은색, 푸른색, 흰색 및 녹색으로 분류하여 3개의 광장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수국원 곳곳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비성수기 시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벤트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평면에서 보면 대형 수국 꽃 3개가 피어나는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잎사귀와 꽃잎에는 수국을 식재하고, 대형 수국의 줄기는 동선의 역할을 한다. 줄기(동선)를 따라 걸으면서 수국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꽃이 피기 시작한 초기의 수국은 녹색이 약간 들어간 흰 꽃이었다가 점차로 밝은 청색으로 변하여 나중엔 붉은 기운이 도는 자색으로 바뀐다. 수국은 토양 성분에 따라 꽃의 색이 정해지는데,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많이 띠게 되고, 알칼리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재미있는 생리적 특성이 있다,

나무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포플러 위치 : 수국원 뒤

수령 45년이 된 이 포플러 나무는 현재의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구역에서 자란 나무였다. 국제습지센터 이전에는 오산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던 이곳에서 살던 포플러 나무는 국제습지센터가 생기면서 베어질 운명에 처해 있었다. 2010년 박람회장 조성을 시작할 때만 해도 포플러 나무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베어서 어린이 놀이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나무의 쓰임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담당자들은 포플러 나무를 임시로 박람회장 약용식물원 쪽에 심어 두었다가 이듬해 봄, 현재의 터에 자리하게 됐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보금자리를 미처 신경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인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미덕을 선보이는 포플러 나무를 보면 한결같은 너른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21 참여정원

정원의 테마와 주제를 통해 정원을 새롭게 인식하며 정원박람회가 우리의 여가문화와 환경의식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며 조성한 공간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와 국내의 도시, 그리고 각 기업과 작가들이 정원을 가꾸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 도시들은 각 도시의 특징이 반영된 정원을 선보였으며, 기업들 역시 평소 추구했던 가치를 정원에 구현하였

다. 여기에 작가들의 참신한 정원까지 모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조성하였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당시 36개의 실외정원과 26개의 실내정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26개의 실외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에 남아있다.

각 참여 그룹은 크게 도시, 기업, 작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정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도시정원

서울의 정원 : 서울특별시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표현한 정원이다. 전통적인 정원 이미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 하여 세계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고궁과 마천루가 조화를 이룬 국제도시 서울에는 개발 논리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자연 치유된 철새들의 낙원 밤섬이 있다. 도심 속의 숨겨진 보물 밤섬을 형상화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현재와 녹색가치의 시대를 펼쳐 가고자 하는 서울의 미래를 표현하였다. 또한, 원형의 화단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충만한 순천만 연안습지의 원형 갈대 군락지를 표현하였다.

오이소, 보이소, 즐기소 : 부산광역시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산, 항상 흥겨움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도시 부산.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명소를 함축하여 둘러볼 수 있도록 꾸며진 정원이다.

무등을 노래하다 : 광주광역시

자유·평등을 상징하는 무등산의 무등정신과 대동정신이 서석대, 입석대, 너덜을 지나 비엔날레 출품작인 장고와 별자리를 통해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짐을 표현하였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정원: 고흥군

고흥을 대표하는 팔영산을 배경으로 특화작물인 유자와 석류를 소재로 한 '석류·유자 치유의 숲'이라는 테마정원을 조성하였다. 우주선 조형물을 통해 우주로 통하는 관문인 고흥을 상징화하였으며, 우주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을 표현하였다.

수원의 정원 : 수원시

전통과 문화의 도시 수원시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정조대왕의 웅대한 꿈이 서려있는 화성을 상징화한 정원으로, 중앙에 보물 제1710호인 서북공심돈(西北空心燉)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화성의 전통연못인 용연을 표현하였다. 서북공심돈은 중국 성서(城書)의 제도를 본떠 치(雉)에다 돈(燉)을 설치한 것이다.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약간 돌출시켜 치를 만들고, 그 위에 벽돌로 3층의 망루를 세우고 망루 꼭대기에는 포사(鋪舍)를 지어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서북공심돈 전면에는 수원 화성의 성곽 일부를 도입하여, 성곽의 선형은 조선시대 전통의 활인 국궁을 형상화하였다.

기업정원

꽃들에게 희망을 환경정원 : 환경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정원으로 표현하였다. 멸종위기 식물을 포함한 한반도 자생식물로만 조성한 정원으로, 빗물을 활용한 재생시스템도 보여준다. 특히 국가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순천 및 영월 교도소, 서울 및 청주 소년원 수용자들이 직접 증식한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소통과 회복,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식물을 가꾸는 일이 치유와 위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원이다.

KJB 광주은행 : (주)광주은행

든든한 지역 금융의 동반자 KJB 광주은행이 은행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성과 정원의 부드러운 선에 빗대어 표현한 정원이다. 성의 라인은 식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동시에 고객과 은행을 이어주는 신뢰를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의 정원은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를 상징한다.

SK 행복정원 : SK E&S

SK그룹이 기업광고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주제어를 담아낸 정원이다. 공간이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가는 다랑논으로 표현된 정원의 형상은 고객 행복을 위해 과거, 현재, 미래에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기업, SK의 모습을 상징한다. 마지막 계단의 가운데에는 정원의 핵심 공간으로 따뜻한 느낌의 가제보를 배치하여 SK그룹이 추구하는 행복이 머무는 공간, 행복을 담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정원休 : 가든 5090

가벼운 산책과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 평화로운 정원에서 탁 트인 공간을 바라보며 차 한잔 마시거나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이다. 현대인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과의 대화인 명상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자연의 요소를 통해 정원으로 표현하였다.

물을 담는 큰 그릇 :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보이는 물의 양의 변화를 통해 세계적 이슈인 물 부족과 물 소비에 관해 이야기하는 정원이다. 물의 양이 변하면서 그릇 내 바닥이 때때로 드러나는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은 우리의 물 소비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물 부족 시대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 그리고 물의 저장과 공급을 통해 땅과 자연에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정원에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색 펼치고 개다 : 조경작업소 울

천이 펼쳐지거나 개어진 모습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평평한 대지 위에 다양한

색깔의 평면과 화단을 펼쳐놓았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염색 재료인 물, 흙, 식물을 만나고, 생활 속 조형물로 드러난 염료식물의 숨은 색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적인 색조를 띠는 정원이다.

조형 대나무 동산 : 삼한건설조경주식회사

뒤뜰과 산에 있던 일반 대나무가 예쁜 모습으로 변신하여 정원과 베란다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대나무동산은 죽순이 올라오는 4월부터 90일 동안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어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120번의 사람 손길을 거쳐 탄생하였다. 대나무는 2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는 분재 대나무들로, 오랜 노력 덕분에 현재의 형태 그대로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관목터널과 수경시설을 통해 시각·청각·촉각으로 만나고, 허브를 통해 미각·후각으로도 만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코레일 정원 : 코레일

추억과 낭만의 상징 철도여행을 박람회장으로 옮겨놓았다. 국가 동맥인 철도의 역사에 관한 사진과 그림을 기차 조형물과 함께 전시하고, 남북한의 기후특성을 보여주는 오죽과 자작나무를 식재하여 한반도 종단철도의 희망을 표현하였다. 또

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니기차를 설치해 즐거움이 가득한 정원으로 조성하였다.

크나이프 테라피 정원 : 서울대학교와 독일 라인마인대학교

19세기 독일의 물을 사용한 독특한 자연치료요법인 크나이프(Kneipp-Bath) 요법을 경험할 수 있는 정원으로, 관람객들이 독일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며 지친 다리를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뉴 새마을 정원 : 전남새마을협회

1970년대 범국민적 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의 맥을 이어온 '뉴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변화, 도전, 창조의 의미를 조형적이고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정원이다. 시골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 정겨움을 더하고,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하나 씨드뱅크 가든 : 하나은행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은행은 씨드뱅크를 주제로 우리의 푸른 미래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하였다. 씨드뱅크는 지구에 닥칠지 모르는 재앙에 대비해 씨앗을 모아두었다가 훗날 지구를 복원시키는 프로젝트다. 정원은 낡은 화물용 컨테이너와 환경에 해가 되는 기름통, 폐목 등을 재활용하여 인간이 버린 쓰레기조차 정원에서는 아름다움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강한 정원이다.

현대제철 희망 정원 : 현대제철

스틸 구조물 사이에서 다양한 꽃이 피어나는 희망나무는 철 안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짐을 상징한다. 특별한 희망나무가 전하는 따뜻한 철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원이다.

한・일 우정의 정원 : (주)온유조경, 고스키조원, (주)수프로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조경회사가 순수 기부활동을 통해 조성한 정원으로, 다른 정원에 비해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오감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생정원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범시민회의

순천을 대표하는 철쭉과 억새를 활용해 발전하는 순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순천의 24개 협의회가 모여 결성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범시민회의가 만든 정원이다. 순천의 산과 들에 자생하는 나무와 풀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되, 빈 공간을 충분히 살려 상생과 안식을 표현하여 절제의 미를 살렸다. '오룡쟁주형(五龍爭株形)'이라고 일컫는 순천의 지세를 통해 상생과 화합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낙엽교목 다섯 주를 상징적으로 배치하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라이온스클럽의 투철한 봉사 정신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유하였으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봉사 정신을 원형의 형태로 형상화하였다.

난대수종의 생태정원 : (주)한국조경수협회

온대 남부 및 해안성 기후대에 속하는 순천지역에서 자생하는 수목을 선정하여 난대수종 생태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난대수종의 교목과 관목 등의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난대수종으로 자연스러운 숲 터널을 만들고, 반대쪽에는 조경수를 배치해 편안함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석가산 정원 : 조경디자인 린(주)

석가산은 산수자연을 축경하여 집안으로 끌어들인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 조성기법으로, 산수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한국정원의 중추적 경관물이다. 석가산정원은 고증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석정문화의 시대별 대표 유형을 정자와 담장으로 재현하고 있다. 중국, 일본과 다른 한국 전통정원의 양식을 만날 수 있으며, 고대로부터 삼국, 고려, 조선을 거치며 변화해 온 정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정원이다.

두루미 정원 : 디자이너 김현주

두루미는 평화와 장수를 상징한다. 두루미 정원이 그 뜻을 담아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였다. 정원 앞에서 전체를 관망하며 날개를 펼친 두루미의 형상이며, 정원의 길을 따라 걸으면 두루미의 아름다운 곡선을 느낄 수 있다. 자연과 교감하여 소통하는 도심 속 정원으로, 분홍빛의 초화화단이 더욱 낭만적인 감성을 불

러일으키는 정원이다.

마지막 물결 : 디자이너 Jim Fogarty

이 정원은 호주의 해변을 모티브로, 휴양지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유서 깊은 박스들을 목재로 된 그늘막으로 표현하고, 모래사장 위에 남겨진 물결을 연못을 통해 표현하였다. 벽면 위의 하얀 세로 물결 모양은 남부 해안가의 깊은 곳에 서식하는 켈프해초를 묘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연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해안지역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서안의 정원 : 중국 서안시

서안정원은 수목, 회랑, 정자, 물, 바위와 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고대 사가에서 정원을 만들던 방식 그대로 재현하여 중국정원의 품격을 보여준다. 중국정원의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해 정원의 중앙에 전체 정원을 장악하는 주요 건축물을 배치하고 그 중심에는 실개천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정원 속의 정원'은 제한된 공간에 자연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인 구조로, 전체 건축물 본래의 특색을 유

지하면서도 전체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생의 여행 : 디자이너 Andy Sturg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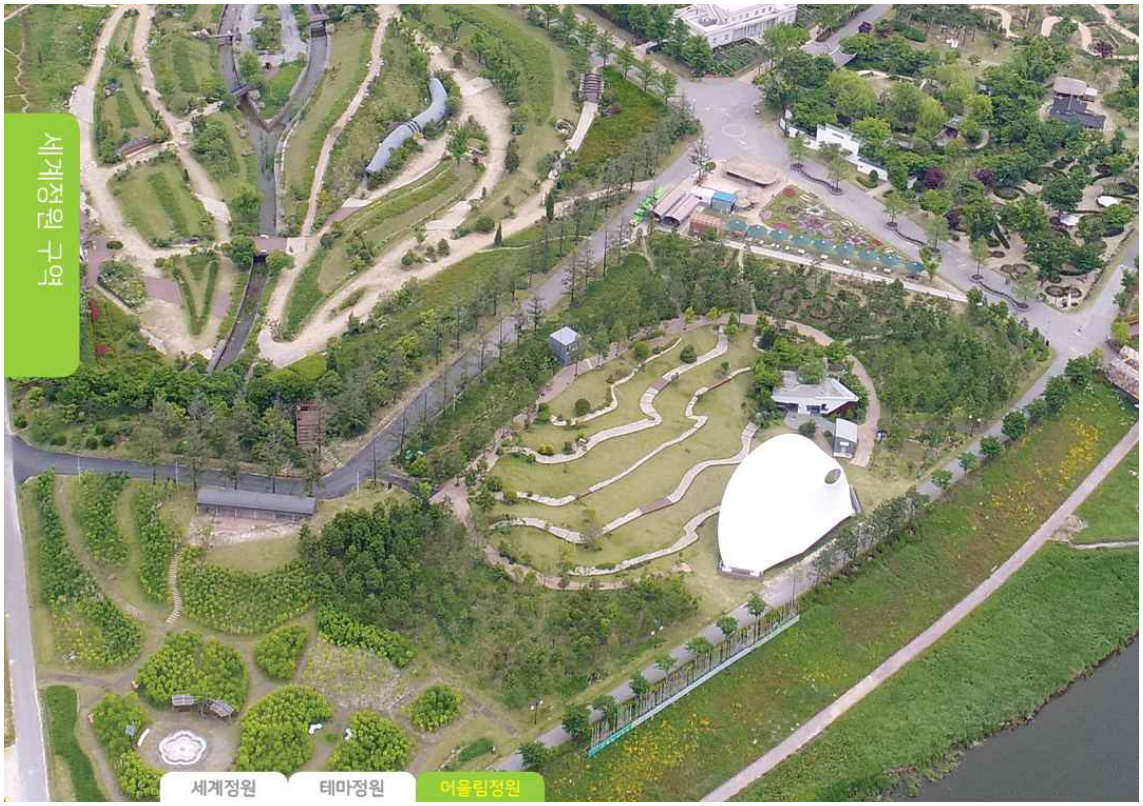
이 정원은 어디에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소재를 이용한 현대적인 자갈정원이다. 식물과 단단한 재료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은 특정한 곳을 생각나게 하진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드럽고 이국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위해 남반구, 지중해 지역의 건생식물과 영국정원의 식물을 섞는 등 각기 다른 지역의 식물들을 조화시켰다. 이 정원은 바람과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쉼터이다.

22 한평정원

한평정원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당시 전문가의 제한된 참여가 아닌 온 국민이 함께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기획된 정원이다. 꿈틀정원(박람회 당시 어린이놀이정원) 옆 클로버 동산에 조성된 한평정원은 2011년 11월 첫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경연을 통해 선정된 64명과 초등학생, 다문화가족이 참여하여 박람회 기간 중 총 90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초등학생부터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를 통해 작지만 꿈과 희망이 담긴 정원들이 '정원을 통한 국민 행복지수 올리기'라는 기획 포인트로 박람회장에 조성되었었다.

예선을 통과한 확정자에게 리싸이클링정원, 키친정원, 오브제정원을 테마로 재사용을 통한 자원의 소중함과 내가 가꾸는 건전한 먹을거리를 일깨우고, 초등학생에게는 위인전 동화스토리를 정원 테마로, 다문화가족에게는 향토정원을 테마로 모국의 향수를 그려내도록 기획하였다. 당시 총 3회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한평정원 전시는 매회별 30개의 작품을 약 45일간 전시하여 전체 90개의 정원 작품을 전시하였었다.
특히 순천 황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꾸민 한평정원이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어린왕자와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소품을 직접 만들었으며, 정원은 8월 한 달간 박람회장에 전시되었다. 또한, 식물정원 인근에 다문화가족이 조성한 한평정원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9개국 16가구 다문화가족들이 한평의 정원공간에 자국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 3개월간의 디자인 컨설팅까지 거치면서 새로운 정원문화를 선보였다. 가족들이 함께 정원연출에 동참하여 소중한 추억을 쌓고, 다문화가족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기회가 되었다.

박람회가 끝나고 순천만국가정원이 되면서도 한평정원에서 그 의미를 이어 매년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하고 있다. 2017년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55개의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하였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많은 참가자와 이를 관람하기 위한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23 동천갯벌공연장

동천갯벌공연장은 순천만의 본질을 담아 만든 곳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즐거운 시간에 앞서 순천만 보전을 위한 마음을 널리 헤아려주기를 바라며 만든 공간이다. 끊임없이 순화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갯벌처럼 박람회 기간 주제공연을 포함하여 국가의 날, 지자체의 날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이 펼쳐졌다.

동천의 강바람이 넘어오는 강변에 위치한 동천갯벌공연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을 위한 주 공연장으로 계획되었다. “갯지렁이 다니는 길”을 디자인한 황지해 작가가 순천만의 갯벌모양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하고, 이름을 따온 것으로 동천갯벌공연장의 관객석은 다른 야외 공연장과는 다르게 계단 속에 계단이 자리 잡은 독특한 형태로 조성하여 곡선의 콘크리트와 푸른 잔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공연장 주변은 편백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객석은 순천만의 본질인 갯벌의 이미지를 형상화함과 동시에 황지해 작가가 순천에서 모은 폐품을 활용하여 가치를 더하였다. 공연장 옆에는 공연장과 어울리는 낡은 폐선을 형상화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순천만이 가지는 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다.

24 한방체험센터

한방체험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친근하고 유익한 소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재미있는 볼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한방체험센터 주변에는 한의학에서 효능을 인정한 다양한 종류의 한방 약초가 심어져 있다. 백량금, 작약, 무늬억새, 주름잎, 개별꽃 등, 식용이나 먹을거리 채소로 우리에게 익숙한 들풀에서부터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산약초 뿌리까지 그 효능과 특성을 알 수 있다. 또 원추리, 노루귀, 홍도비비추, 꽃쥐손이풀, 배초향 등 11종의 산야초도 식재되어 있다.

한방전시관 : 143㎡의 공간으로, 약재 서랍, 단상, 한약 봉지, 작두 등과 한방 재료를 전시해 한약방을 재현한 한방전시관에서는 사상의학을 토대로 체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상체질과 현대식 한방 건강테스트를 진행한다.

한방체험관 :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한의학 지식을 소개하는 144㎡ 규모의 공간이다. 위생적인 건식 족욕 장비를 설치해 족욕을 하면서 힐링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 치료실에서는 체질별 맞춤형 한방 향 테라피 체험을 진행한다.

한방치유관 : 192㎡의 규모로 지어진 한방치유관에서는 사상체질 검사, 이혈검사, 진맥 등의 진단 및 진료가 이루어진다.

한방카페 : 고전적 분위기와 현대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81㎡ 규모의 다실로 연출하였으며, 한약재와 허브를 비롯해 체질에 맞는 차를 선정해 마시면서 각자의 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방판매관 : 3대 명약이라고 일컫는 인삼, 구기자, 하수오와 한방체험형 기념품을 판매한다.

놀이마당 : 한방체험과 앞 놀이마당에서는 투호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윷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모두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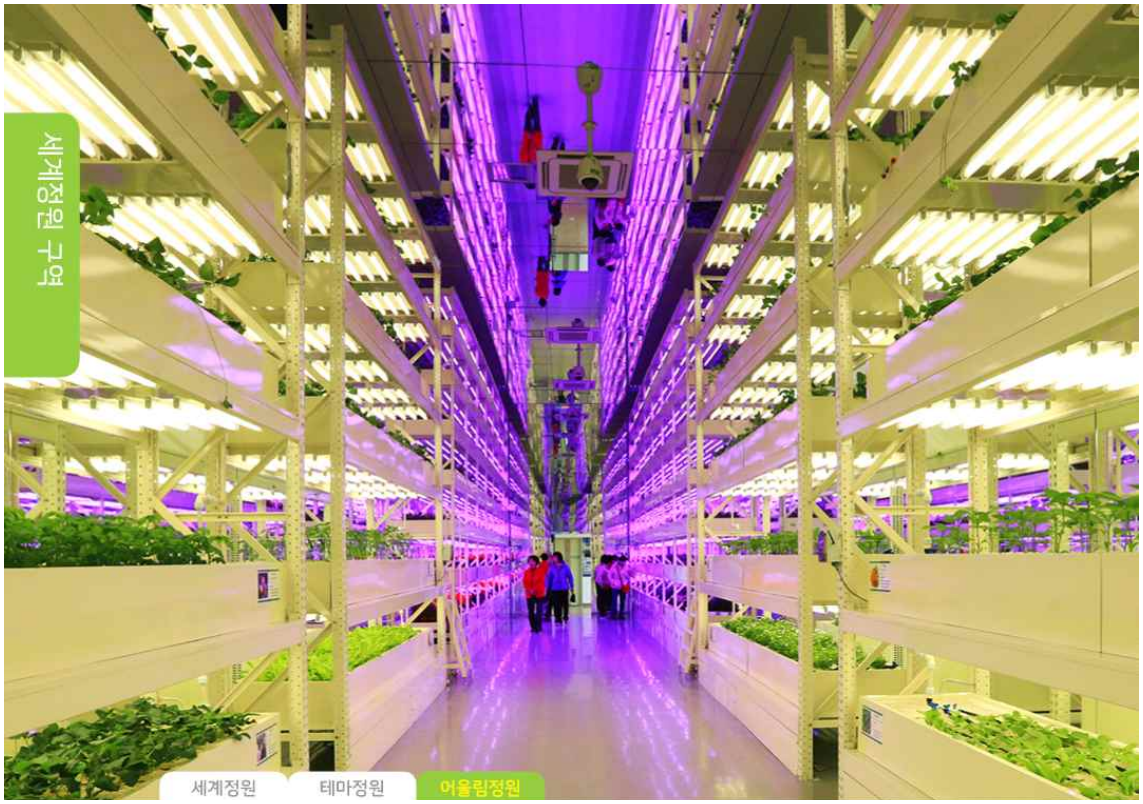
25 약용식물원

약용식물원에는 먹거리 식물로 우리에게 익숙한 들풀에서부터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인체에 좋은 산약초와 나무까지 180여 종의 다양한 약용식물

이 7가지 주제로 식재되어 있다.

꽃을 감상하는 식물
약용식물 가운데 꽃이 아름다운 식물을 따로 모았다.
오장질환별 식물
인체의 오장인 간, 심, 비, 폐, 신과 관련된 질환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밥상에 놓이는 식물
부위별(잎, 뿌리, 열매, 새순) 식용으로 다양하게 조리 가능한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처방별 약초
조상대대로 즐겨 사용한 총명탕, 육미지황탕, 생맥산 등의 주재료가 되는 식물이 모여 있다.
유독식물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는 식물로 조성되어 있으며, 산에서 발견하면 주의해야 하며, 함부로 먹으면 위험한 식물들이다.
살아있는 약초도감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이름별로 구별하여 식재되어 있다.
세계약용식물
세계 각국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식물을 한 데 모았다.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약초에 의존해 병을 고쳐 왔다. 그래서 약초는 귀중히 다루었다. 특히 그 귀한 쓰임에 비해 주변에서 흔히 보는 풀 중에도 약초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길가나 산에서 자라는 민들레, 쑥, 마당에서 자라는 나팔꽃, 봉선화,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와 석창포도 약초가 된다.



26 식물공장

순천만국가정원의 식물공장은 정원과 IT가 융합된 이동 가능한 모듈형 농업공장으로, 첨단 IT시스템과 미래형 농업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이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제어하는 미래형 농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동형 식물공장과 최첨단 경작지를 체험할 수 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 습도, 조도 등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과 관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상 속 모습이 현실에서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순천에 위치한 중소기업 (주)파루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폐쇄형 육묘시스템(식물공장)을 개발해 남극 세종기지로 보냈다. 덕분에 3,000㎞나 떨어진 칠레에서 통조림으로 가공된 야채를 공급받아야 했던 세종기지 연구원들은 싱싱한 야채를 재배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정원박람회 식물공장에서 개발된 시스템 역시 박람회 이후, IT 농업에 활용해 주말농장과 연계하거나, 이동형 식물공장을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에 판매한

후 원격관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27 메타세쿼이아길

메타세쿼이아는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자란다. 또한, 어디에 뿌리를 내려도 햇빛을 좇거나 바람에 굴해 제 몸을 수그리지 않는다. 미국정원에서 스페인정원 길까지 300m 구간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다.

메타세쿼이아길에 심어진 나무들은 88고속도로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베어질 것들을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해 박람회장에 옮겨 심은 것이다.

국내에서 메타세쿼이아길로 유명한 담양과 남이섬에 가지 않고서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이라면 시원한 그늘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메타세쿼이아길은 중간중간 푸른 메타세쿼이아와 대비되는 빨간 공중전화 박스, 장미로 만든 하트 등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다. 또한 메타세쿼이아길 안쪽으로는 계절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메밀꽃이, 가을에는 핑크뮬리,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계절별로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습지 구역

28 나눔숲

정원박람회장 하단부에 해당하는 순천시 풍덕동에는 산림청 녹색기금을 지원받아 50,000㎡(약 15,125평) 규모의 녹색나눔숲을 조성하였다. 이는 한방약초정원과 녹색나눔숲을 연계한 치유효과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심 인근에 배회로 기능의 공공숲으로서 도입한 것이다. 느리게 사색하며 걷고 싶은 사람들,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걷고 싶은 이들을 위한 숲길이 이어진다. 턱이 없는 바닥으로 조성해 휠체어와 유모차, 힘든 길을 걷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약자, 누구든지 편안하게 정원과 자연습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다. 자연이 선물하는 향기와 풍광은 누구든 공평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9 생태체험장

생태체험교육장은 습지 생태와 그곳에 서식하는 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습지 체험 실습장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생태 학습을 지도하는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면서 관찰을 돕는다.

생태 학습을 지도하는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면서 관찰을 돕는 교육장으로 수생식물, 습지 생물에 대해 배우고 습지 환경과 습지의 가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이곳 생태체험교육장에서는 오수가 정화연못의 식물에 의해 깨끗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 비오톱습지

비오톱습지는 순천만 자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인공 습지이다. 내륙 습지 상태를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넓은 습지를 걸어볼 수 있도록 산책길로 조성되었다. 이 공간은 순천만의 생태계와 서식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생태 환경 향상에 기여한다. 생태 도시의 완성을 꿈꾸는 순천만의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보호 활동과 의지가 담긴 공간이다.

습지센터 구역

31 빛의 서문

수목원 구역에 위치한 '빛의 서문'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첫 관문으로서, 자연 침하 지형을 그대로 살려 디자인한 광장이다. 건물 전체 구도가 태양처럼 둥글고 기존의 땅 보다 가라앉아 보이도록 설계되어, 땅으로 쏟아지는 빛을 한곳으로 모으는 선큰(Sunken) 광장 형태이며, 지구의 정원을 밝히는 빛을 의미한다. 회랑, 앉음벽, 플랜터, 화장실 등과 함께 단풍나무, 소나무, 산딸나무, 느티나무 등의 수목 및 억새, 쑥부쟁이, 백리향 등 146,000본의 화훼가 식재되어 있다.

선큰 광장 형태의 빛의 서문은 침하된 지형을 그대로 살려 낮게 가라앉은 지형은 광장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식생을 살려 출입문으로 사용하도록 자연친화형 구조물로 조성되었다. 자연스러운 지형 위에 솟은 세 동의 건축물 사이로 광장 어느 곳에 서든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으며, 건물에는 매표소, 관광안내센터,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쪽 세계정원 구역은 '지구동문'이 있고, 서쪽의 습지센터 구역은 '빛의 서문'이 있다. 서쪽은 정원의 역할보다는 순천만과 연결된 국제습지센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습지센터 내에서 순천만 습지에 대한 학습과 정원이 탄생한 설명을 듣고, 순천만의 가치와 의미를 느껴보는 것이 좋다. 빛의 서문 둘레에 배치된 건물들은 매표소와 특산품판매장, 종합안내소가 있는데, 문 안쪽 볼거리를 밖에서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건물 밖 도로에서 보면, 빛의 서문 안쪽의 건물은 보이지 않고, 건너편 산과 자연적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풍경만 보인다.

나무 이야기

위풍당당 팽나무 위치 : 서문 광장

많은 나무가 새로운 도시 설계에 의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지거나 베어지는 운명에 처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 나무'들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은 바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있었다. 순천시 풍덕동 배수펌프장 주변 공원 건설을 위해 베어질 운명에 처했던 이 나무는 다행히 박람회장으로 옮겨와 새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60년의 세월을 품고 서 있는 팽나무이기에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다. 빛의 서문 입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 위풍당당 팽나무는 오랜 세월 살아온 나무답게 이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국내에 두 대뿐인 굴삭기를 동원하고 경찰까지 나서 교통 통제를 한 끝에 무사히 이식되었다.

32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관으로, 순천만의 생태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습지의 자연정화 원리, 생물과 공존하는 모습과 세계적인 생태도시들도 만나볼 수 있다. 순천만자연생태관이 연구시설로 전환되고, 급증하는 생태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5.5km 후방의 도심지역으로 이전·건립된 공간으로 순천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물론, 생태관광객의 도심 체류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순천만 탐방의 전이 공간이자 인공적인 환경에서 순수 자연환경으로 넘어가는 완충 지역으로서, 내륙 습지의 환경 관찰과 연안습지를 보전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의 역할과 습지 및 조류 관찰과 전시 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으로서 가치를 더하고 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약 3,000평, 건축 연면적 9,954㎡)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설립목적의 특성상 지형 흐름을 반영하여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붕 층을 공공영역으로 조성하였다. 옥상녹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정원으로 조성하고, 북측에 의한 도로소음과 북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외부에는 전시계획과 연계하여 수생식물 체험습지 및 생태탐사 공간으로서 물새놀이터 및 야생동물원을 배치하였고, 습지와 야외공연장이 어우러지도록 선큰형태 공간으로 조성하여 소음차단효과를 증대하였다. 친환경적인 건물의 특성은 재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자연에서 채집·가공된 재료를 적용하여 정원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였다.

내부에는 순천만습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시관, 생태수도순천이 꿈꾸고 있는 영상관이 있고, 순천만스토리를 3D 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입체영상관, 그리고 최대 300명이 동시에 회의할 수 있는 컨퍼런스홀이 갖춰져 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이러한 시설들은 자연친화적 건물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자체발전 시스템과 태양광, 지열을 활용해 소비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조성 당시에는 전체 건물 소비에너지의 40%가량 절감하였던 데 비해 현재는 지열, 태양광, 지붕 잔디의 영향으로 전체 에너지의 80%를 절약하고 있다.

생태도시관

생태도시관은 지금의 순천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이야기와 세계의 정원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자연을 포함하는 정원의 광범위한 의미를 전달하고, 도시화를 극복한 순천과 세계의 여러 정원도시를 소개하였다.

생태체험관

생태체험관은 살아 있는 자연 속을 거닐며 순천만을 생각하는 공간이다. '기대-경이-탄생-만남-공존'이라는 주제로 순천만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생생한 모습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진다. 순천만을 이해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들과 만나며, 생태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생태체험관에서는 계절별로 변하는 순천만을 실내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첫 입구는 기대공간으로 순천만의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하여 기대를 높인다. 경이공간은 순천만 자연환경을 와이드 영상으로 감상한다. 탄생공간은 순천만의 탄생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식을 갖게 한다. 만남공간은 계족

산에서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실제 현장을 그대로 살려 살아있는 동식물로 연출하였다. 다람쥐나 자라, 피라미, 특히 순천만의 붉은발말똥게와 칠게, 짱뚱어 등 실제 갯벌의 살아있는 광경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존공간은 우리나라에서 생태적으로 연출된 유일한 전시공간이다.

야생동물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전시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너구리와 관상용 닭, 고슴도치, 물범, 오소리 등은 물론, 순천과의 우호교류를 위해 세이셀공화국 대통령이 기증한 알다브라 육지거북 암수 한 쌍 등이 어울려 공존하는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장소이다.

물새놀이터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물새와 홍학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쿠바홍학, 유럽홍학, 칠레홍학, 꼬마홍학 등이 자유롭게 펼치는 군무를 감상할 수 있는 새들의 놀이터다. 물새놀이터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개나 고양이와는 다르게 새는 가까이에서 보고 접하는 기회가 적어서인지 개와 고양이를 보호해야한다는 사람들은 많아도 새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물새놀이터에서는 새를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자연스레 보호의식을 갖게 된다. 영국의 WWT습지에서는 오리와 기러기 등 새들이 수도 없이 많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수달을 안고 만지는 과정에서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하늘정원

습지센터 지붕에 조성된 정원으로, 버려진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 지붕 위에 부드러운 한국잔디를 깔고 꽃과 화초를 심은 공간이다.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 단열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정원이다.

33 순천만WWT습지

순천만WWT습지에서는 습지의 수생식물과 야생조류가 어울려 살아가는 자연습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습지 주변으로 실벚나무(수양벚나무)·왕버들·느릅나무·멀구슬나무 등 교목 248주와 개쉬땅나무·조팝나무·뜰보리수·꽃댕강나무 등 관목 19,050주, 무스카리·천일홍 등 40종 6,100본의 화훼 및 갈대·부들·조릿대 등 22종 342,310본의 초화류, 한국잔디 7,526㎡(약 2,276평)를 식재하였다.

영국의 WWT의 조언을 받아 조성한 순천만WWT습지는 도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를 잡고 살아가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조류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39,700㎡(12,000평) 규모 면적에 습지를 기본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습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수목 및 화훼류 등을 식재하여 습지와 조경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조성하였다. 좌안은 어미 새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우안은 어린 새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습지 중간 중간의 돌더미들은 해엄을 치는 오리, 백조 등의 새들이 힘들 때 쉴 수 있게끔 조성하였다. 호수 안에는 오리와 기러기가 일 년 내내 생활하고 있으며 겨울이면 철새들도 많이 찾는다.

물이 고인 습지호수에는 다양한 토착조류와 철새들이 모여 산다. 습지호수에 사는 물새들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공존하고 다음 세대는 같은 자리에서 그 질서를 따르며 산다. 순천만WWT습지는 생태도시의 완성을 꿈꾸는 순천시가 미래에도 환경과 습지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조성한 공간이다.

나무 이야기

기막힌 모과나무 위치 : WWT습지

수령은 자그마치 300년, 이 모과나무는 순천 별량면 대동마을에서 '마을의 보물'로 자리하고 있었다. 처음에 마을 주민들은 박람회장에 모과나무가 옮겨지는 것을 반대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모과나무를 쉽게 떠나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모과나무 부근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외진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을 우연히 박람회 관계자가 발견해 119구급차를 불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이 모과나무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데 쓰이라는 뜻이라고 여기고, 흔쾌히 이식을 허락하여 할머니의 생명을 살린 모과나무는 '생명의 은인 나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기성용 꿈나무 위치 : WWT습지

축구 감독이었던 아버지 기영옥 감독의 영향으로 순천중앙초등학교에서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기성용 선수는 탁월한 신체 조건과 골 능력으로 많은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순천 축구 꿈나무들의 희망이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기성용 선수는 자신의 탄생목인 느릅나무를 기증하였다. 순천만 WWT 습지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이 느릅나무는 세계 무대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는 그를 따르려는 후배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34 꿈의 다리

컨테이너 30여 개를 활용해 생태도시의 완성을 향한 순천의 꿈과 희망을 담아 디자인한 꿈의 다리는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다리 미술관이다. 다리를 건너는 모든 사람이 환경과 자연, 순천만과 지구의 정원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컨테이너에 강익중 작가가 틈틈이 메모해 두었던 유쾌한 삶의 지혜들을 작품화한 한글작품을 유리 모자이크 타일 1만여 장으로 설치하였다. 꿈의 다리는 사람과 자연, 자연과 도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꿈을 잇는 다리다. 또한, 지구의 정원과 천혜의 습지,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엮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다리가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꿈의 다리는 연장 175m, 교량 폭 7.29m 규모로, 습지의 자연정화와 자연재생능력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컨테이너를 건축 소재로 재활용하였다. 컨테이너 외부에는 2010상하이엑스포 당시 한국관에 한글 설치작품을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내부에는 세계 어린이의 그림 14만여 장을 설치하였다. 국내

그림은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전국 학교 및 유치원 아이들의 그림을 수집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각국 대사관 및 공관, 시 자매결연 국가의 도시, 한국관광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였다. 국내 약 123,000명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와 해외 14개국 23,0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2010년 중국 상해엑스포에서 한국관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설치미술 작가 강익중은 '자원의 재생과 순환'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꿈의 다리를 디자인했다. 작가는 동천을 가운데 두고 둘로 나뉘어진 공간을 연결하는 보행 동선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꿈의 다리를 건너는 모든 사람이 환경과 자연, 순천만과 지구의 정원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기를 원했다. 강익중 작가는 아이들의 꿈을 담은 그림을 수집해 모자이크 방식으로 공공미술 설치작품을 제작해왔는데, 꿈의 다리는 작가의 디자인 가운데 가장 많은 어린이들의 작품이 전시된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1997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이후 '10만의 꿈'(1999, 파주 통일동산)을 비롯해 120개국 3만4000점을 모자이크한 '놀라운 세상'(2001, 유엔 본부)을 제작했다. 일산 호수공원엔 149개국 어린이 그림 12만6000점을 모은 '꿈의 달'을 설치하기도 했다.

35 스카이큐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하면서 자연환경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 앞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박람회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자연으로 돌아간 정원박람회장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설계단계부터 고려하여 그 목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계획하였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 다음, 스카이큐브를 타고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순천만으로 이동하고, 순천만 감상을 다 하고 난 후 다시 스카이큐브로 습지센터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며 설치하였다.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개발을 담당한 4~6인승의 택시형 무인고속전철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인근까지 4.6㎞ 구간을 운영하도록 설치하였다. 저소음에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첨단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주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스카이큐브는 포스코에서 650억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무인택시 개념의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것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 시범설치하고 향후 30년간 운영하고 그 수입은 포스코가 가져가는 것으로 협약을 하였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지 단순히 일회성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 조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도심이 순천만 방향으로 더 이상 팽창하지 않게 방지하는 완충 역할만 해도 그 임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제 순천만습지의 입구가 이곳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되는것이다. 기존의 순천만생태관은 연구시설로 전환하고 이곳으로 옮기게 된것이다. 이렇게 하는 큰 목적은 순천만으로 향하는 차량 진입을 막고, 순천만에 대한 보전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고민한 끝에 순천시는 스카이큐브를 선택하였다.

36 에코지오 온실

544㎡(약 164평) 규모의 유리온실에 만들어진 열대정원인 에코지오 온실은 250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을 전시하여 정원과 꽃, 예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조하고, 특히 다양한 온실재배 수목을 살펴보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식생이 줄어가는 현실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서 기증받은 일부 수종을 전시하였으며, 하아레카야자, 대만고무나무, 하와이무궁화 등 48주의 교목과 괴불나무, 백서향, 극락조화 등 104주의 관목, 각시붓꽃, 갯기름나물, 골무풀 등 189종 14,073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에코지오 온실은 크게 구성물의 정원, 이벤트 정원, 이색정원, 야생화 분재원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색정원은 공중정원, 식충식물원, 암석원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공중정원과 식충식물원은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다.

15억 년 전 태곳적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인도양 최후의 낙원이라고 불리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을 두 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세이셸공화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18종 250여 본을 볼 수 있다. 파리지옥, 긴잎끈끈이주걱, 벌레먹이말, 벌레잡이제비꽃, 벌레잡이통풀 등 식충식물이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어린이들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온실재배 수목을 살펴보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식생이 줄어가는 자연의 현실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수목원 구역

37 한국정원

한국정원은 우리 옛 정원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공간이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건축과 배치를 미덕으로 여겼던 한국 고유의 정원을 한곳에 모아 궁궐의 정원, 군자의 정원, 그리고 서민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의 정원을 조성하였는데, 소망의 정원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군자의 정원을 지나 궁궐의 정원까지 흐른다. 이는 왕의 힘은 백성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뜻한다. 한국정원은 총면적 20,000㎡(약 6,050평) 규모의 각 정원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배치하고 연못을 조성하였다. 또한 소나무, 단풍나무, 말채나무 등 교목 628주와 해당화, 모란, 앵두나무 등 관목 4,466주, 수련, 꽃창포, 국화 등 초화류 21종 16,960본과 한국잔디 1,328㎡(약 400평)가 식재되어 있다. 지형적 특성을 거스르지 않는 한국의 오래된 정원풍경을 옛 느낌 그대로 재현하여 방문객들이 우리 정원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건축물을 지을 때 배산임수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이때 경사면의 침식을 예방하고 뒤뜰을 꾸미기 위해 장대석으로 계단을 조성해 여러 층의 화단을 만든 후 괴석을 설치하고 초화류와 관목류를 심어 장식하였다. 이를 조선시대 고유한 정원양식인 화계라고 한다. 한국정원이 위치한 지형은 산세가 다소 높지만 옆으로 낸 길을 따라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여백의 미를 살려 방문객의 오감만족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한국정원 뒷길을 따라 편백림과 숲길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전형적인 한국지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호적하고 편안한 체험 공간이다.

한국정원은 현재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 원림(정원은 일반적으로 담장 안의 작은 동산을 의미하고, 원림은 담장 밖과 안의 풍경을 함께 이용한 경치를 말한다)의 흔적을 더듬어 진정한 한국정원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했다. 한국정원은 지형적 특징과 표현하고자 하는 옛 문화재의 자연미, 형태미, 문화성, 내포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연결하여 특징적이고 기억될 만한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궁궐의 정원

다리를 건너 주 출입구인 연휘문을 들어서면 부용지와 부용정이 단아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네모반듯한 부용지 중앙의 둥그런 섬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 우주관을 상징하며, 한쪽에는 임금을 물에, 신하를 물고기에 비유한 어수문이 있다. 자연과 조화된 가장 한국적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복궁 교태전의 후원 문인 연휘문, 아미산 화계, 길상문양의

전통꽃담, 굴뚝의 부조장식과 다양한 문양, 그리고 왕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만들었던 불로문과 만월문 등을 배치하였다. 왕과 왕비의 휴식처로 사랑받았던 궁궐 후원의 특징을 재구성한 아름답고 기품 있는 궁궐의 정원이다.

창덕궁 후원을 모티브로 후원 곳곳에 이야기를 품은 의미 있는 구조물들을 배치하여 새로운 후원으로 재구성하였다. 후원에 들어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휴식을 위한 정자로서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넓고 아름다운 공간인 부용정과 부용지를 도입하여 새로운 후원의 느낌으로 조성하였다.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넓고 아름다운 공간인 부용정의 부용은 활짝핀 연꽃을 가리키는 말로 살짝 치켜 올라간 처마 끝의 모습이 연꽃을 연상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왕의 상징이자 신선계를 의미하는 네모난 연못 속 둥근 섬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군자의 정원으로 넘어가는 곳에는 둥그런 액자의 역할을 하는 만월문을 세우고 조선 시대 왕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던 불로문은 돌문으로 장애인 통로와 연결되도록 배치하여 그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군자의 정원

소박한 정자 툇마루에 앉으면 그대로 자연이 된다. 군자의 정원에서는 옛날 선비들이 앉아 시를 읊고 경치를 즐겼을 것만 같은 세심정이 깊은 운치를 더한다. 연못 위에 오롯이 서 있는 광풍각과 서석지, 낮은 담장과 정겹게 느껴지는 협문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으려고 했던 옛 선비들의 마음을 보여준다.

선비들이 세속의 명리를 버리고 학문과 사색의 공간으로 애용한 곳으로 담양 소쇄원의 광풍각과 경북 영양의 서석지, 덕천서원의 세심정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비정원을 담아냈다. 계류를 끼고 있는 정자는 주변 경관은 물론, 그 소리까지도 오감에 의해 완성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자연 자체가 정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마루에 앉아 문 하나만 열면 앞뒤가 모두 보이도록 시각적 개방성을 두었다.

소망의 정원

소망의 정원은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두 손 모아 빌던 우리의 정서를

반영한 공간으로, 서민들의 정원이다. 어둑한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의 무사안일을 빌던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리며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하였다. 박람회가 끝난 후 모인 동전은 수거하여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소망의 정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현한 곳이다. 자연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게 자연의 영향력은 단순한 생명체를 넘어 위대한 기운을 지닌 일종의 의식이었다. 나무, 돌, 우물가 등에서 복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는 다양한 행위가 행해졌다. 이러한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계류 중심에 돌로 만든 두꺼비 조각상을 배치하고 한쪽에는 돌탑을 조성하여 소박함이 느껴지는 서민들의 정원이다. 전통문화의 특성상 역사적 고증이 미약하여 사람의 손길이 적은 폭포수가 흐르는 한적한 곳을 재현하였다.

38 나무도감원

나무도감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들과 산에 조림된 수목을 수종과

품종끼리 모아놓은 정원으로, 나무도감 속에 들어 있던 숲과 나무가 현실 속에 그대로 펼쳐진 모습을 상상하며 디자인한 공간이다. 총 15,300㎡(약 4,620평) 규모에 황벽나무, 회화나무, 굴거리나무 등 265주의 교목과 좀작살나무, 다정큼나무, 유카 등 3,478주의 관목을 식재하여 훗날 울창한 숲이 되도록 연출하였으며, 초가, 트렐리스, 쉼터, 벤치 등을 조성하였다.

한국정원 맞은편에 위치한 나무도감원은 난대수종과 온대수종을 함께 식재하여 훌륭한 학습의 장이자 이색적인 경관으로 연출하였으며, 꽃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스마트폰의 QR코드로 알아보면서 또 다른 나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책로와 벤치가 마련된 공간 한쪽에는 노산 이은상 선생의 「나무의 마음」이라는 시비가 놓여 있다. “나무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소”로 시작되는 이 시를 보며, 잠시 쉬는 동안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온 나무 한 그루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무 이야기

지구정원 1번 나무 위치 : 나무도감원

이 나무는 거대한 크기와 무게 때문에 차량으로 옮길 수 없어 산림청 헬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헬기로 아무리 들어올리려고 해도 마치 땅바닥에서 누군가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무가 처음 있었던 곳은 순천시 상사면 용암마을 묘지 옆. ‘나무의 전령이 붙잡고 있는 것일까’라고 여긴 현장 스태프들이 소나무에게 막걸리 한 잔 권하자 거짓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람회장에 처음으로 이식되는 나무였던 만큼 모든 스태프들의 애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박람회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호된 서리를 맞아 고생한 나무 걱정에 담당공무원이 뿌리를 덮어줄 비닐을 들고 박람회장을 찾았는데, 나무를 옮겨 심었던 현장 소장도 나무가 걱정되어 찾아왔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소나무에게 막걸리 한 잔 더 부어주고 잘 자라기를 기원했다.

근심 먹는 은행나무 위치 : 나무도감원

순천시 옥천동의 향동주민센터 앞에 자리했던 이 나무는 두 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살아남은 ‘근심 먹는 은행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벼락을 맞은 이 은행나무는 100년 동안의 생명력을 이어오며 기구한 사연을 품고 있다. 은행나무를 자세히 보면 얼핏 뿌리에서 굵은 줄기가 3개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암수가 서로 다른 나무 3그루가 뿌리 부분에서 함께 자란다. 한 그루는 양수이고, 두 그루는 암수인 일부다처제 은행나무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 이 은행나무를 베어 내려고 마음먹었던 주인은 몇 차례 나무를 베어 내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악몽을 꾸게 되었다. 결국 이 나무가 평범한 나무가 아님을 깨달은 주인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기증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두 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100년이 넘도록 한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은행나무는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는 신비한 나무로 여겨진다. 벼락 맞은 은행나무에 소원을 빌면 그해 풍년이 들고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5분 전 은행나무 위치 : 나무도감원

조금만 늦었으면 베어질 운명이었던 이 나무는 평범한 은행나무였다. 집주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베어내려던 것을 보고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김 모 교수가 '마침 박람회장에서 나무도감원을 만든다'며 기증을 권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희귀종도 아닌 평범한 나무를 순천시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며 다시 베려고 했다. 그 때 마침, 은행나무를 보러 찾아온 담당 공무원이 집주인의 결단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하게 들렸던 기계톱 소리가 심상치 않았던 그는 "나무 가지러 왔어요!"라고 외치며 은행나무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이때가 바로 30년된 은행나무를 구한 순간이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아니 딱 5분만 늦었더라도 줄기가 잘렸을 이 나무를 이식했던 이들은 나무에게 딱 걸맞은 '5분 전 은행나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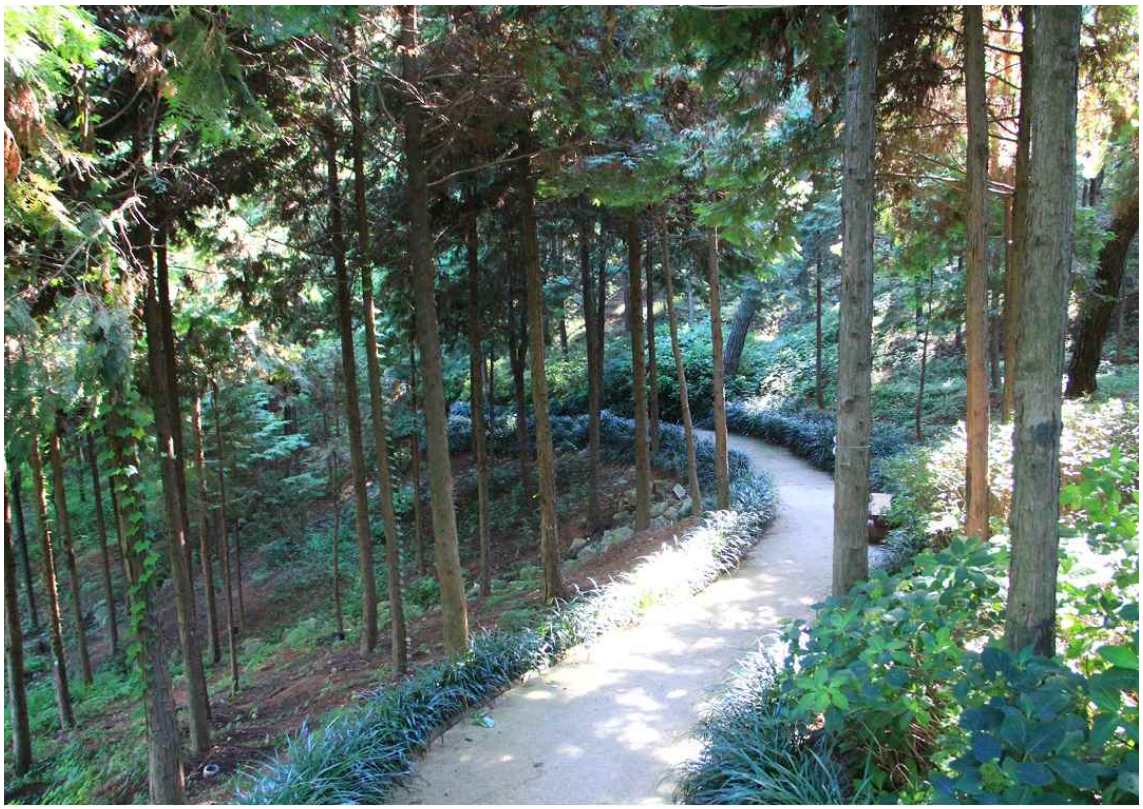
39 철쭉정원

순천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철쭉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으로 산비탈을 따라 철쭉 100여 종을 식재하여 10,742㎡(약 3,250평) 규모의 커다란 화단으로 연출하였다. 철쭉 외에도 남천, 황금편백, 흰말채나무 등 관목 112,705주와 산수유, 단풍나무, 금목서, 얼룩식나무 등 교목 297주를 식재하였으며 원두막,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다. 희귀철쭉 100여 종이 암석과 함께 어우러진 철쭉정원은 '사랑의 기쁨'이라는 철쭉의 꽃말을 되새기며,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는 순천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순천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쭉의 70%를 길러 내는 철쭉의 고장이다.

40 남도숲길

한국정원 뒤쪽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남도숲의 식생으로 조성한 자연스러운 남도숲길이 펼쳐져 있다. 산과 바다가 만나는 순천의 자연경관과 수목이 어우러진 숲길에는 소나무, 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이 골고루 조성되어 전라남도 지역에 자리하는 산의 식생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순천은 전라남도에서 산이 가장 많은 도시로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산속 숲길은 순천 지역민들이나 순천 근교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통행로였으며, 숲길을 걷는 것은 일상이었다.



41 편백숲

편백 1,000여 주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맡으며 걸을 수 있는 숲이다. 수목원 구역의 중턱에 위치한 편백숲은 산림욕을 통해 피톤치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인 숲길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 조성하였다. 산책로를 따라 벤치가 있고, 편백숲 뒤편으로 소나무 숲길이 300m 남짓 이어져 있어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좋은 에너지로 재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42 늘푸른정원

수목원 내에서 가장 따뜻한 지형에 자리 잡은 늘푸른정원은 남도의 숲을 보여주는 정원으로, 사계절 내내 푸른 상록활엽수가 만드는 운치 있는 산책로와 사색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수목원 부지에 자생하던 녹나무와 함께 후박나무, 가시나무 등 290주의 교목 및 남천, 홍가시나무, 산수국 등 16,348주의 관목을 식재하여 10,000㎡(약 3,025평) 규모의 사계절 푸른 남도의 숲을 조성하였다.

88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확보한 홍가시나무와 공공숲가꾸기를 통해 확보한 원목 등으로 숲과 나무데크, 벤치 등을 조성하였다.

상록수가 하늘을 향해 곧게 올라가는 모습은 신성함을 자아낸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나무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 나무의 정신적인 힘에 매료되었다. 나무 한 그루에서도 신성함을 발견하고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을 담아 늘푸른정원 끝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상징하는 에코지오탑을 세웠다.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푸른 지구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가려는 순천시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43 수목원 전망지

걷기 편하게 이어진 길의 끝자락, 초지원 위쪽 산꼭대기의 탁 트인 수목원 전망지에 올라서면 순천만국가정원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다. 편백나무와 소나무 등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순천의 드높은 하늘과 유유히 흘러가는 동천, 다양한 빛깔과 형태로 조화롭게 구성된 정원박람회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다. 낮은 곳에서는 미처 감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과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바로 아래 펼쳐진 나무도감원과 습지센터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

44 생각쉼터

숲은 사색하기 가장 좋은 장소다. 남도숲길에서 이어지는 사색의 길에는 산벚나무와 산수유가 자라고 다양한 종류의 자생야생화가 피어 있다.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난·온대림 숲길로, 사색하며 잠시 철학자가 되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을 조성하여 대지의 기운을 느끼고 교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걷다 다리가 아프면 생각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살려 복원한 생각쉼터는 마을 뒷동산 같은 친근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인위적인 설계를 최소화한 이곳은 목련을 비롯한 산수유, 단풍나무 등 자생수종이 어우러진 여유공간으로 도시의 생활공간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이야기

45 동천이야기

동천은 발원지인 청소골에서 흘러나와 순천의 도심을 가로질러 순천만과 남해 그리고 태평양까지 흘러가는 순천의 중심 하천이다. 구불구불 제 길을 내며 흘러가는 동천은 백로와 버들치, 은어와 모래무지가 살고 있는 친환경 자연형 하천으로 수생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야생화 꽃 단지를 비롯하여 산책로와 징검다리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편의성도 만족시키고 있다. 대대포구에서부터는 드넓은 갈대군락으로 이어지는 순천만의 장관을 이루어 내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46 문턱없는 화장실

순천만국가정원에는 총 23개의 화장실이 있다. 건축할 때는 반드시 출입구에 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이 공중화장실 건물들은 모두 입구에 계단이 없게 설계되었다. 이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국가정원 내 화장실은 기능성뿐 아니라 디자인도 인정받아 독일정원 옆에 위치한 화장실은 '2014년도 제1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은상을 받았으며, 동천갯벌공연장의 폐선을 모티브로 한 화장실은 '2013년도 제1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은상을 받았다.

47 초가쉼터, 갈대쉼터

순천만국가정원 곳곳에는 초가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정원 설계 당시, 나무와 꽃 외에 설치되어야 하는 인공 시설물을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초가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초가쉼터를 만드는 재료들은 모두 순천에서 생산되고 수집된 것이다. 예를 들어 초가를 지탱하는 목재는 수십 년 된 마을의 옛 가옥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정원에는 재활용한 자재들이 많은데 큰 나무, 돌, 목재, 그늘막 등을 모두 재활용한 것이다. 이 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200억 원 정도라고 하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한때 재활용박람회란 이름으로 불리던 것도 이 때문이다.

48 잔디수로이야기

국가정원 내 수로는 대부분 잔디수로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된 U공관 수로는 개구리와 같은 작은 생명체가 빠지면 하수구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잔디수로는 언제든지 바로 옆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잔디수로 외 다른 수로는 대부분 걷는 길 바로 옆에 설계되어 행인들이 자칫 잘못하다 발을 헛디디게 되는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크지만 잔디수로는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국가정원의 특별한 이 수로를 생태수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이다.

49 2016 순천만국가정원정원산업디자인전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된 '2016 순천만국가정원 정원산업디자인전'으로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원, 함께 일구는 미래'를 주제로 정원 리뉴얼, 한평정원 페스티벌,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가드닝용품 제작 판매 등 정원과 산업, 문화, 디자인이 어우러진 정원축제로 진행하였다.

'순천만국가정원 크리에이티브 가든 쇼'를 기획한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정원과 디자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내부에 작품을 전시하였다. 그는 정원에는 나무와 꽃등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며 정원 사이를 걷다 잠시 쉴 수 있는 의자, 밤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명, 정원에서 뛰노는 강아지 집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자신의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작품 중 하나인 '프루스트 체어'를 순천만국가정원에 배치하였다.

정원의 리뉴얼의 일환으로 해외의 유명한 작가를 초대하여 정원을 조성하였다. 프랑스 쇼몽가든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리온 크루게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아프리카 하늘아래', 프랑스 출신 작가인 크리스토프 링컨의 '가능성의 영역 미래의 정원', 2016 영국 첼시 플라워쇼 금메달 작품인 이시하라 카쥬키의 '센리-센테이 가든', 2015 금메달 수상자인 영국 출신 작가인 사라 에벌리의 '쉼터', 4명의 해외 작가를 시작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 크리스토프 링컨

'가능성의 영역' 미래의 정원(Le champ des possibles)

미래의 정원. 이 정원은 인간이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을 변형하여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표출했다. 식물의 섬유, 씨앗 덕분에 새로운 친환경 세상을 제공하는 데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정원이다. 땅의 수평선을 바꾸고 기울기를 만든 것은 미래의 골방, 유익하고 교육적인 공간, 호기심의 장소로 표현했다. 혁신의 정원. 스마트폰으로 정원의 식물 분류,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상황들을 담았다.

일본 : 이시하라 카쥬키

센리-센테이 가든(Senri-Sentei Garden)

일본출신의 정원작가인 이시하라 카쥬키 작가는 해외작가 정원 구역에 2016년 영국첼시 플라워쇼 금메달 작품인 "센리-센테이 가든"을 직접 조성했다. 센리-센테이 가든은 차량을 위해 식물디자인이 된 골동품 차 애호가의 정원이다. 이층구조로 설계되어 오프로드 자동차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가족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옥상 층까지 정원으로 설계됐다. 비록 많은 가정에서 자동차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정원이지만, 이 정원은 차량과 정원의 결합이다. 1년 365일 아침, 점심, 저녁 정원의 장면은 무수히 변화하고 또 유지된다. 센리-센테이 가든에서는 1000가지의 계절을 느낄 수 있다.

영국 : 사라 에벌리

쉼터(The Haven)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일대일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자선단체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정원의 가운데에는 버드나무를 이용해 새 둥지를 만들어 평화로운 공간이자 사람들을 껴안아 주고 위로하는 '쉼터'의 자연적 의미를 담았다. 이 정원은 유방암으로 인해 육체적,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완요법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 리온 크루게

아프리카 하늘아래(Africa Festival)

이 정원은 동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매일 사용하는 가장 필수적인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프리카인의 상징인 바오밥나무 아래는 큰 행사나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멋진 모임 장소가 된다. 화려한 마스크들은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커다란 바오밥나무 아래서 축하하고 춤을 추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아프리카 공화국은 외부인에게 뜨겁고 건조하고 적대적인 환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 같은 아프리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식물, 다양한 곤충과 동물에게 살아가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며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온 크루게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유럽과 싱가포르, 일본 등과 견주어 보아도 절대 뒤지지 않는 정원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50 설치미술 이야기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설치미술작품들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원의 가치를 높이는 공존의 공간 연출을 선보인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당시 참여한 국내 설치미술작가들이 참여한 전시는 순천만 생태의 상징성을 칠면초에 담아 봄부터 가을까지 일곱 번의 색깔변화를 일곱명이 지닌 7가지 아름다움으로 승화하였다.

박람회 이후에도 생태와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2016순천만국제자연환경미술제를 개최하며 순천만국가정원의 특성을 살리며 정원과 조화롭게 설치미술을 배치하며 새로운 정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설치작품

자연으로부터 : 김상현

자연을 모티브로 아름다움과 깨끗한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조형화하였으며, 둥근원형은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순환의 기호로 기하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질서에 관한 어법 : 김재성

기하학적인 형태는 수직과 수평선의 대립적 관계의 만남이 만들어 낸다. 여기서 만들어진 면은 공간을 뜻하기도 하며, 순수 아름다움의 근원인 조형적 형태이기도하다. 절제의 순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단순화하였으며, 반복적 패턴을 통해 순환의 지속성을 이야기 하였다.

시간 : 김희양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재해석한 작품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견하는 작품이다.

휴식처 : 방우송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쉼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의자를 선정해 작품화하였으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쉼터가 될 수 없게끔 전체 의자의 표면을 못으로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적인

쉼터의 상징적인 의자가 인간의 쉼터가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 전체가 우리들의 진정한 쉼터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기다림 : 김상현

현대인의 기다림에 대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감정을 표현하였다.

목이 길어진 기린 : 이이남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을 제작하고자 목이 긴 기린의 특징을 강조하여 가상의 해프닝을 연출한 작품이다.

꿈의 다리, 순천만을 바라보는 사람 : 강익중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꿈으로 이루어진 다리위에서 순천만을 관찰하며 지키고 있다. 각국의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 찾아올 때 까지 우리 어른들이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찾아보는것도 좋다.

축배 :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송영무, 한국 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

축배(Rhyton of feast)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이 지역 가야시대의 각배와 순천만의 상징 새인 흑두루미를 결합하여 풍요와 생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이 곳에 서서 산과 물, 땅 그리고 '각배'와 마주하니,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어라!
잠시 상념을 떨치고,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며 스스로에게 길을 묻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 꿈을 축배에 담아보자!

2) 2016 순천만국가정원산업디자인전 설치작품

꽃의 새 : 알레산드로 멘디니

이 조각은 순천만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새와 꽃 사이의 오랜 우정을 나타낸다. '꽃의 새'에는 계절에 따라 흰색, 노란색, 분홍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꽃과 잎으로 가득하여 언제나 새롭고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게 된다. 커다란 새의 형상은 겨우내 순천만을 찾아오는 철새의 상징으로 마치 수백만 마리의 어린 새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어미 새들을 닮은 모습이다.

숲의 여인 : 아비가일 바라레

스테인레스 스틸을 거울처럼 마무리해 만든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작품은 주변의 환경을 비추도록 설치하며 이를 통해 관람객은 녹색 정원으로 변신한 여성들을 만난다. 거울은 쉽게 깨지고 마는데 이는 인간의 나약함뿐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며 자양분을 공급 받는 환경의 취약함을 상징한다.

돌아가는 길 : 최평곤

인류는 희망이 아닌 탐욕을 먹고 살아간다. 탐욕으로 빚어낸 이상 기온 현상으로 천년만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한 북극곰은 새끼를 잡아먹거나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대자연은 묻고있다.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인류는 대자연의 일부이다. 또 다른 '인류', 대자연과의 만남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만나는 것이다. 그 고통의 길을 벗어나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실낙원, 본래 인류가 왔던 곳, 어머니의 자궁 속 같은 대자연의 품이 있다.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 인류가 하나로 만나는 길이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길, 대자연으로의 회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너와 나를 살리는 길이다.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희망을 묻는다. 인류는 희망이 있는가.

신세계 건설을 위한 자연으로부터의 탈주
: 찰스 참바타

잠비아는 세계 어느 곳보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많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이상하게 잠비아는 항상 외국의 원조에 의존한다. 이 작품을 통해 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잠비아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무로부터 돌출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에서의 실패를 상징한다.

순천에서 엮다 : 스티븐 시걸

'순천에서 엮다'는 1990년 이후 제작한 일련의 종이 작업 중 가장 최근 작품이다. 7,000 킬로그램에 달하는 신문지를 살아 있는 나무나 죽은 나무

사이에 엮듯이 쌓아 올린다. 이 작품은 지질학적 기원, 시간, 자연의 순환을 상기시킨다. 관람객이 작품 주위를 걷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와 입은 대지 : 이승택

'흙기와'는 동양의 아름다운 유산이다. 서양이 동경하는 기와의 신비는 오랜 우리의 역사 속에 숨 쉬고 있다. 지붕 위에서만 있던 기와가 땅으로 내려와 광활한 대지와 자연의 품 안에서 인간을 감싸고 있다.

에필로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순천만국가정원이 탄생하기까지

1. 물에 잠기던 땅에서 자산 가치 1조원의 정원으로 재탄생

국가정원의 부지는 공사 이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리면 물에 잠겨 농사도 어려웠던 땅이었다. 그랬던 땅이 현재 자산 가치 1조원의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정원으로 탄생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2. 조경용 모래를 자급해 사용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조경용 모래가 필요했다. 약32,000㎥(입방미터)의 모래를 외부에서 구입하기로 했으나, WWT 습지를 만들기 위해 굴착해보니 양질의 모래가 발견되었다. WWT 습지 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농경지의 흙과 같아 보였는데, 막상 습지의 물을 가두기 위해 파 내려가니, 약 1m 높이의 모래층이 있었고 이 양은 자그마치 정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래 양의 80%에 해당하는 27,000㎥(입방미터) 정도였다. 이로서 약 3억원 가량의 모래를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3. 기존 건물과 도로 구조물은 골재로 재탄생

국가정원 부지 안에는 평촌마을, 교회와 같은 많은 건물이 있었고, 콘크리트 농로 등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 이러한 건물과 구조물은 철거 뒤,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 골재로 사용하였다. 친환경 정원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었다.

4.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시공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의 경우, 찰스 젱스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시공하였는데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식이었다. 때문에 찰스 젱스의 설계대로 실제 시공에 들어가기까지, 비가 오면 흘러내릴까 천막으로

덮기도 하고 잔디가 흘러내리지 말라고 나무 젓가락으로 일일이 잔디를 고정하기도 하는 등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순천호수정원의 경우,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하기 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호수정원의 마운딩 조성을 위하여 찰스 젱스는 직접 찰흙으로 만든 모형을 제작해 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시공 방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찰스 젱스는 자신이 직접 오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까지 한국으로 파견하여 노하우를 전하는 등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여주었다.

5. 아이디어로 탄생한 순천만 호수 옹벽

아름다운 순천호수를 두르고 있는 옹벽은 조성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되었다. 국가정원 땅의 지하가 뻘로 되어 있어 옹벽을 세울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큰 비용을 투자해 콘크리트나 철재 말뚝을 박는 방법이 있었으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순천만국가정원의 조성 목적과 부합하는 친환경성을 생각한다면, 산림사업으로 버려지는 소나무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격이었다. 철재 말뚝 대신 소나무로 말뚝을 박아 옹벽의 기초로 사용한 이 아이디어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나무들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식할 수 있었던 말뚝형지주목이라는 관계자의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었다.

6. 송전철탑 철거

박람회장을 조성하기전, 풍덕동(순천만에코촌 앞)에서 오천동(국도유지사무소 옆)까지 3km 구간에 걸쳐 여수산업단지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154천 볼트의 고압 송전선로와 12기의 철탑이 박람회장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었다. 박람회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논바닥과 고압선로 간 이격거리가 충분했지만, 박람회장 조성 부지에 1.7 ~ 8.3m까지 흙을 쌓게 되면서(성토) 송전선로까지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자 나무 식재는 커녕 송전선로 아래로 공사 차량도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박람회 개막을 불과 1년 5개월을 앞둔 2011년 12월, 결국 한전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중화 사업을 시작하기로는 하였으나 아무리 빨라도 박람회개장 기간이 훨씬 지난 2013년 6월은 되어야 지중화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순천시는 내부적으로는 지중화사업을 위해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한전이 전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한전작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5년이 소요된다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는 공사를 시작한지 1년 만에 완료되어 2012년 11월 3일에 결국 마지막 고압선로와 철탑까지 철거되었다. 개막까지 남은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압선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공사까지 하기 위해 그때부터 정말 밤낮을 가릴 겨를이 없었다. 철탑지중화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일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인 셈이었다.

7. 기술자들도 반대했던 꿈의 다리 건설

기술자들은 처음 '꿈의 다리' 건설 계획에 대하여 교량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두는 사례는 그동안 없었으며, 동절기와 하절기에 구조물이 수축·팽창하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꿈의 다리를 건설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으나, 당시 정원조성본부장의 지속적인 설득과 여러 차례 반복된 기술적 보완을 통해 현재의 꿈의 다리가 완성될 수 있었다. 꿈의 다리에는 각 분야 최고 기술자들의 흔적이 곳곳에 녹아있다. 꿈의 다리를 가득 채운 어린이들이 그린 14만장의 그림은 10년이 지나고 어른이 된 후에도 자신의 꿈 그림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료를 정리하였다. 홈페이지에서 그림 위치를 검색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만 10명의 인력이 2개월 동안 투입되었다.

8. 미리 예견한 대형수목 뿌리돌림과 나무 확보

'정원박람회 조경을 어떻게 해야 숲속을 거니는 기분이 들까?' 생각한 끝에 대형 수목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수목을 찾기 위한 5개 조를 편성하여 순천 곳곳을 찾아 나섰다. 서면구상지구와 승주유평지구 공유림 내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대형군락지를 찾았고,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처럼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2009년부터 뿌리돌림을 시작한 대형 수목 1,500본을 확보하여 조성한 정원박람회는 총예산 중 200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

9. 조경감독의 아이디어 지주목 없는 “매립형지주목 특허”활용

박람회장의 그 많은 나무에 지주목을 설치하고, 윗부분을 잘라버리고 식재하면 어땠을까? 15m 이상의 큰 나무 식재 시 지금까지는 지상에 지주목을 박는 방식을 이용하였지만 미관상으로나 토지 이용에 좋지 않은 방식이었다. ‘지상의 지주목을 없앨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고추나무를 심을 때 말뚝을 박아놓고 끈으로 묶어 고추 농사를 하는데 세월이 지나 그 말뚝이 흙과 엉겨 붙어서 빠지지 않는 원리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매립형지주목이 탄생했고 순천시청 이름으로 특허를 받아 박람회 전 지역 조경수 식재방법에 적용하였다. 현재 조경수 관련 단체에서는 박람회 당시, 단시일에 그 큰 나무들이 어떻게 심어졌는지, 나무를 자르지 않고 원상 그대로 어떻게 이식하였는지, 지주목 없이 나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3대 궁금증이 남아있다고 한다. 조경 식재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매립형지주목’ 방식이 적용된 순천만국가정원은 각 지방단체 및 조경관계자의 벤치마킹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책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백서

펴낸곳 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발간일 2014년 1월 30일

이 책은 순천만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가지는 의미와 조성과정부터 홍보까지 개최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담았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합스토리북

펴낸곳 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발간일 2013년 3월 16일

이 책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정원의 이야기를 담았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스토리텔링 컨텐츠 가이드

펴낸곳 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발간일 2013년

이 책은 각각의 구역을 화훼, 나무, 볼거리, 목적, 이야깃거리 & 재미거리, 5가지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놓았다.

정원이 키운 아이들

펴낸곳순천시 시민소통과
발간일 2015년 1월 20일

이 책은 2015년에 발간된 책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각각의 구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정리해 놓았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합스토리북

펴낸곳 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발간일 2013년 5월 30일

이 책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당시 핸드북 형식의 해설 메뉴얼로 구역별 이야기를 간략하게 담았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펴낸곳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발간일 2013년 5월 30일

이 책은 찰스 젱스, 황지해, 강익중 등의 작가들의 인터뷰와 정원의 나무이야기, 각 정원의 개요와 컨셉을 담았다.